



2014년 4월호

VOL. 430

08 기획특집

제주로 떠나는 여행

31 아빠! 위해?
항공소방사편

34 꿈을 찾는 인터뷰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 & 뽀로로

41 Pioneers up Above 도산 안창호

54 담벼락 저쪽

COVER STORY

제주로 떠나는 여행

따뜻한 봄을 맞아 월간 「공군」이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제주도에 도착하니, 따스한 봄바람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한라산 위로 펼쳐진 파란 하늘에 수놓아져 있는 하얀 구름이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2014년 4월호

VOL. 430

08 기획특집

제주로 떠나는 여행

31 아빠! 위해?
항공소방사편

34 꿈을 찾는 인터뷰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 & 뽀로로

41 Pioneers up Above 도산 안창호

54 담배락 저축



8



18



31



34



41



표지(앞) 제주도에 전시된 팬텀 전투기 사진 | 중사 권형
표지(커버스토리)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제호디자인 | 병장 조기봉
표지(뒤) 하늘사랑문학상 광고

발행일자 2014년 4월 3일(통권 제430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성일환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이형길 편집감수 중령 이상규, 소령 천명녕
기획·편집 대위 이동혁, 중사 고미숙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April 2014 Volume 430



• 공군IN

공군IN Fitness	6	봄철 피로증후군을 물리치는 봄나물 5
Zoom iN 태극전사	7	브라질월드컵 최종 모의고사
기획특집 1	8	제주로 떠나는 여행
포토프레임@AF	14	참모총장 동정
Airforce Monthly	16	3월의 공군소식
기획특집 2	18	병영문화 역할극
만화	22	Space Challenge 2014
공군은 나의 힘	24	이재우 동국대 석좌교수
공군이 만난 스타	26	립서비스
아빠! 뭐해?	31	17전비 소방중대 심동선 상사
꿈을 찾는 인터뷰	34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 & 뽀로로
공군문화유산답사기	38	사천 선진리성 공군 총령비

• GLOBAL & INSIGHT

Pioneers up Above	41	도산 안창호
Air-Power Report	44	힌두스탄 파이터, HF-24 마루트

•• CULTURE 36.5

Hollywood English	46	노예 12년
트렌드가 보인다	48	스태디움 재킷
Preview	50	4월의 추천영화
Air-Supply	51	소녀시대 스타일

•• OPINION

생각하는 그림	52	행복과 불행사이
담벼락	54	저축
책마을	56	다윗과 골리앗





봄철 피로증후군을 물리치는 봄나물 5

가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나른하고, 피부는 푸석해지고 일에 의욕을 잃어 공연히 피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러한 봄철 피로증후군은 겨울 동안 낮아져있던 신진 대사가 봄철을 맞아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이다. 질병은 아니지만 매년 3월부터 4월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반갑지 않은 계절 현상이다. 봄철 피로증후군(춘곤증)을 극복하기 위한 봄나물을 알아보자.

● 피로를 물리치는 봄나물

봄나물의 가치는 신선도에 있다. 깨끗한 토양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것으로, 어린 것일수록 연하고 물기가 많아 맛이 좋다. 그러나 봄나물은 어린 잎, 어린 순, 줄기를 먹기 때문에 이른 봄의 잠깐이 제철이며, 이때가 지나면 섬유질이 많아져 역세질 뿐 아니라 제 맛이 떨어지고 만다. 봄나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채소는 열량보다는 몸 안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영양분, 섬유소를 공급한다.

신선한 채소일수록 85% 이상이 수분이며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A와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고 무기질로는 칼륨, 칼슘, 인 등이 들어있으며 철분은 녹색이 짙은 잎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



* 약해진 시력 보호하는 - 냉이

봄나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냉이는 채소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다. 잎에는 비타민A가 풍부해 눈 건강에도 좋으며 칼슘, 철분도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어서 피곤함과 나른함을 이기게 하는 피로회복용 나물이다. 뿌리와 함께 캐 국을 끓이거나 나물로 무쳐 먹는데 독특한 향을 느낄 수 있다.

* 여름더위에 강해지는 - 썸바귀

봄철 입맛이 없을 때 씹새로운 썸바귀의 쓴 맛은 미각을 돋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리 전에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친 다음 찬물에 담가 쓴 맛을 우려내고 새콤하게 무쳐 먹으면 위장을 튼튼하게 해 소화 기능을 좋



게 하는 특징이 있다. 예로부터 이른 봄에 썸바귀나물을 먹으면 그 해 여름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했다.

* 피로회복에 좋은 - 두릅

두릅은 성질이 차가운 식품이므로 많은 양을 먹으면 민감한 사람은 설사, 배탈이 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채소에 비하여 비교적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C가 특히 많아 봄에 돌아오는 어린 순을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좋다. 두릅의 쓴 맛을 내게 하는 사포닌 성분은 혈액순환을 도와줘 피로회복에 좋다.

* 피를 맑게 하는 - 돌나물

섬유질이 적은 반면 비타민C와 인산이 풍부하며 신맛도 있어 식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피를 맑게 하고 간염이나 황달, 간경변증 같은 간질환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김치로 담가 먹으면 시원한 자연의 맛을 듬뿍 느낄 수 있다.

* 미용 효과가 있는 - 달래

약간 쓴 듯, 씹새로운 맛이 매력인 달래는 비타민A, B1, B2, C를 골고루 지녀 식욕을 돋우고 피부의 건강에 관여하는 부신피질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 미용음식이다. 특히 비타민과 무기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빈혈과 동맥경화에 좋다. 삶으면 대부분의 비타민C가 파괴되므로 날로 먹는 것이 좋고, 무침에는 식초를 곁들이는 게 비타민C 파괴를 막아준다. 된장국에 넣으면 독특한 향취로 개운한 맛을 높여준다. **AF**



글
하성룡
(스포츠조선 기자)



사진출처
KFA, 연합뉴스

그림
일병 김재하



최상의 다이아몬드 조합

홍명보호가 2014년 브라질월드컵 D-100일인 3월 6일 최종 모의고사를 치렀다.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그리스 원정에서 그리스를 2대 0으로 제압했다. 유럽파의 가세로 공격력이 배가 됐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완벽한 조합이었다. 박주영(왓포드)의 가세로 비로소 다이아몬드가 완성됐다. 박주영은 홍명보호의 화룡점정이었다. 전반 18분 선제 결승골을 뽑아냈다. 박주영은 홍명보호의 4-2-3-1 전술에 최적화된 원톱이었다. 좌우와 중앙을 넘나들며, 공간을 창출하고, 공격 이음새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박주영에게 환상 로빙 패스를 선물한 손흥민(레버쿠젠)은 후반 10분에 전매특허인 강력한 슈팅으로 추가골을 만들어냈다. 1골-1도움, 폭발적인 드리블과 탁월한 골 결정력에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도 향상됐다. 이청용(볼턴)은 마무리가 다소 아쉬웠지만, 변함없는 창의력과 속도감을 선보였다. 볼키퍼 능력은 홍명보호에서 단연 으뜸이었다. 다이아몬드의 중심인 구자철(마인츠)도 부활했다. 올 시즌 마인츠로 등지를 옮긴 그는 새도 스트라이커에 포진해 차원이 다른 지배력을 과시했다. 더블 볼란치(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의 한 축인 기성용(선덜랜드)은 능숙한 경기 운영으로 한국에 무게감을 더했다. 박주영-손흥민-구자철-이청용-기성용으로 이어진 유럽파 5명이 '한국형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며 홍명보호의 브라질월드컵 사상 첫 원정 8강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렸다.

그리스전으로 본 월드컵 예비엔트리

8개월간 진행된 홍 감독의 '옥석 가리기'도 그리스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그리스전은 홍명보호의 현재이자 미래였다. 브라질월드컵의 베스트 11은 그리스전과 '대동소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이아몬드 구형을 완성한 유럽파 5인은 부상만 없다면 무난히 월드컵 장도에 오를 수 있다. 공격 진영에서는 김신욱(울산) 이근호(상주), 미드필드에서는 하대성(베이징 궈안), 김보경(카디프 시티) 등이 교체로 투입됐다. 홍 감독의 '교체 카드'에 대한 구상이 공개된 셈이다. 기성용의 파트너였던 한국영(가시와 레이솔)도 완벽한 수비력으로 홍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다. 김진수(알비렉스 니가타) - 김영권(광저우 헝다) -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 - 이웅(울산)이 꾸린 포백 라인도 브라질행 티켓을 예약했다. 그러나 백업 수비수 구성은 여전히 난항이다. 박주호(마인츠), 차두리(FC 서울), 곽태휘(알힐랄), 황석호(산프레체 히로시마) 등이 최종 검증받지 못했다. 정성룡(수원), 김승규(울산)가 골키퍼 주전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No.3 골키퍼를 두고 김진현(세레스 오사카)과 이범영(부산)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최종엔트리가 발표되기 전까지 홍 감독이 고심을 거듭할 포지션이 백업 수비라인과 골키퍼다. 마지막 변수는 부상이다. 홍 감독은 "월드컵 본선까지 선수들의 컨디션과 부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은 기간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을 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F**



WORLD CUP
대한민국 역대 월드컵 성적

스위스 (1954)	프랑스 (1998)
멕시코 (1986)	한국-일본 (2002)
이탈리아 (1990)	독일 (2006)
미국 (1994)	남아공 (2010)
브라질 (2014)	

2014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
16강 진출 목표



“혼저옵서예, 하영 놀당 갑서양!”

60수송전대 제주종합수송지원반

제주공항에 들어선 수송기를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0수송전대 소속으로 제주도에 파견된 제주종합수송지원반 장병들인데요. 2층짜리 건물에 간부와 병사를 합쳐 8명이 근무하는 작은 사무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화물 적재와 하역

쉽게 설명하면 군용 수송기를 이용한 인원과 화물 수송을 지원하는 부서인데요. 수송기를 탑승하는 인원을 안내하고, 화물을 처리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수송기에는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 전해 줄 보급품이 실려 있는데, 지게차나 카고로더를 이용해 항공기에 실려 있던 화물을 하역한 뒤, 해당 부대에서 물품을 인계해 줍니다.



탑승수속

공수기 탑승객의 명단과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검색대를 운영하는 것도 지원반의 임무입니다. 제주도행 수송기는 보통 공무 목적의 현역뿐만 아니라, 관광 목적의 예비역, 군 가족들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나 흡연을 통제하는 것에 불편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모두가 군 가족임을 알기 때문에, 지원반은 항상 웃음으로 친절하게 승객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Special Theme



스케줄

공군이라면 잘 알겠지만 공수지원은 매우 정해진 스케줄대로 반복 운영하는 '정기공수'와 필요할 때 일회성으로 운항하는 '부정기공수'가 있습니다. 정기공수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대씩 임무가 있지요. 이렇게만 보면 지원반이 무척 한기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부정기공수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C-130 수송기가 7회나 이·착륙하기도 하는데, 사전공항에 내리는 민항기보다 많은 횟수입니다. 운 좋게 부정기공수도 없는 수요일이 생기면 부서원들끼리 체력활동을 합니다. 활주로 너머로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고기를 구우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방에 날아가겠죠.



항공기 유도차 운행은 기본

제주지원반의 간부들은 모두 항공운수, 병사는 항공운수외에 특수차량운전, 항공기기체정비 특기가 배속되어 있습니다. 수송기가 활주로에 내리면 간부나 항공기 유도병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유도한 뒤, 터그카로 수송기를 지원반까지 끌고 오는데요. 이어 지게차로 수송기에 화물을 하역하고 적재합니다. 지원반 식구들은 지게차 운전은 기본이며, 터그카와 트럭까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도 출신은 한 명

8명의 근무자 중, 제주도 출신은 고작 한 명뿐이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고향은 경기도가 셋, 전라도와 경상도가 각각 두 명이었습니다. 물론 비행기도 제주 타볼 수 있고, 따뜻한 휴양도시에서 근무한다는 점은 부럽겠지만, 막상 지기가 제주로 배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누구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뚝 솟아오른 한라산과 화산활동으로 이뤄진 천혜의 자연을 마주하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제주도에서 인연을 만나 결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제주도가 보물섬이 맞기는 것 같습니다.



제주 여행의 팁

제주 여행에서 공수기가 최우선이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수기에는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저가항공사가 있어서 절반 예약하면 기차보다 싼 값으로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당일 한 애기지만 숙소나 렌트는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저렴합니다. 제주 여행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여행 코스가 달라지겠지만 세계자연유산을 자랑하는 제주도인 만큼 무엇보다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름에 हे수욕장도 좋지만, 눈 쌓인 한라산의 절경도 볼 만하죠. **AF**



가족같은 분위기

파견부대는 비행단에 비해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식사조차 가까운 해군부대의 신세를 져야 하죠. 사무실 인콰에는 병사들이 생활하는 생활관이 있는데요. BX나 체력단련실, 사이버지식정보방 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서원간의 전우애는 돈독합니다. 서로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라고요.

Special Theme

1F 항공역사관



에어홀

30m 높이의 실내전시관에는 부활호부터 F-51, F-4D, F-5A 등 23대의 실제 공군 항공기가 바닥에 고정되거나 천장에 매달린 채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동을 켜면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갈 것만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네요. 흥미진진한 세계 항공의 역사와 다양한 항공기를 영상과 모형, 그래픽 패널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1층 로비

방문객이 처음 접하는 공간인 로비에는 우주정거장, 인공위성 등의 실물 모형이 매달려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서는 순간부터 환영의 메시지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항공시물레이션

잠시 조종사가 되어 하늘을 날 수 있는 항공시물레이션 가상체험 공간입니다. 캡슐모양의 시물레이터에 앉으면 왠지 UFO를 타고 있는 기분이 들 것 같네요.



전투기 단면

전시관 한쪽에는 전투기를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측면을 절개해 내부구조를 훤히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공기의 엔진과 부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항공기의 구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이 틀림없군요.



공군갤러리

6·25전쟁 당시 F-51D 무스탕을 타고 출격했던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와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엿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창공을 넘어 '항공우주군'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공군의 현재와 미래도 살펴보세요.



비행원리 체험관

박물관의 야심작이에요. 세계 최대의 미국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의 어린이 전용체험관 'HOW THINKS FLY' 프로그램을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40여 가지 작동모형을 통해 양력, 추력, 항력 등 비행의 원리를 실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공간입니다.



2F

천문우주관 테마공간



천문학 ZONE

2층은 우주 영역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하늘을 보는 과학, 천문학에 대한 동서양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첨성대 모형과 별자리체험 파노라마 스크린 등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천문학적 지혜와 천문역사 기록, 유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주탐험 ZONE

우주를 향한 인류 도전의 역사와 우주 개발의 의미, 그리고 로켓과 우주정거장 등의 구조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이에요.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우주기술과 국내 우주기술 개발상에 대해서도 가상체험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월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의 실제 크기 모형도 전시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SPACE WALK(우주를 향한 길)

SPACE WALK를 걷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뿐만 아니라 은하계와 초대형 블랙홀 등 우주 속 시간여행에 빠져들니다. 화성탐사로봇인 '큐리어시티' 1:1 모형과 허블망원경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플라리스(5D 서클비전)

360도로 제작된 높이 5m, 길이 50m 대형 스크린 위에 환상적인 우주여행 애니메이션이 펼쳐집니다. 관람객의 몸을 뚫고 지나가는 입체영상에 실감나는 비·바람 특수효과를 더해 오감을 만족시키는 5D 영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최첨단 신개념 영상관입니다.



프로시온(인터랙티브 월)

멀티 터치 테이블을 통해 가상 비밀실험실에서 나만의 외계인 캐릭터를 만들어 벽면의 스크린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만든 캐릭터가 인터랙티브 월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며 화면 속 캐릭터들과 교감하는 적극적인 상상과 체험을 제공합니다.



아리어스(영상교육관)

우주를 테마로 한 가상현실 극장에서 30m 크기의 초대형 파노라마 스크린과 27개의 테이블마다 설치된 개별 모니터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학습합니다. 직접 우주선을 타고 실제 우주여행을 하는 듯한 몰입감과 현실감을 제공합니다.

야외전시장



야외전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온 12대의 공군의 전투기를 실물로 만날 수 있습니다. AF

Special Theme

“공군가족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공군의 일이 살아있는 제주의 명소



대정초등학교 ‘공군사관학교 훈적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대정초등학교는 올해 개교 106년이 되는 제주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초등학교다. 이 학교 교정에는 ‘공군사관학교 훈적비(空軍士官學校 訓蹟碑)’가 있다.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제주도에 주둔하며, 이곳 대정초등학교의 건물을 사용했다. 이곳에서는 전쟁터로 보낼 생도 교육이 이뤄졌는데, 약 3개월 동안 1,073명의 기간요원(장교 후보생)이 배출됐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공군사관학교 훈적비 건립위원회는 1987년 10월 1일, 대정초등학교 교정에 ‘공군사관학교 훈적비’를 세웠다. 훈적비의 상징물인 ‘청동 보라매’는 2009년 보수작업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훈적비의 비문에는 “우리 공군은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하늘에 목숨을 건다.”는 공군가의 일부가 새겨져 있다.

강병대교회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강병대교회(強兵臺敎會)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9월 14일에 육군 1훈련소장 장도영 장군의 지시로 준공된 교회이다. 1965년 강병대교회는 공군 제8546부대의 기지 교회로 편입되어 지금까지 인근 공군 부대와 해병대 부대 장병들이 함께 예배를 보는 장소로 활용 중이며, 제38호 근대군사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강병대’는 육군 1훈련소를 부르는 명칭으로 ‘강한 군사를 기르는 터전’이라는 뜻이다. 6·25전쟁 당시 육군훈련 병사들은 모슬포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강병대교회는 훈련을 마치고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기필코 조국을 지키겠다는 용기를 얻는 장소였다. 한편, 1966년 강병대교회에는 야학 ‘신우고등공민학교(信友高等公民學校)’가 개설되어 1981년까지 15년 동안 2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공군장병들은 가난으로 중학교를 가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교사로 나서기도 했다.



임도현 비행사 기념관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에 작은 기념관이 있는데, ‘임도현 항일자료 기념관’이다. 기념관의 주인공 임도현 비행사의 조카이자 현재 중학교 교사인 임정범 선생님이 자비로 마련했다. 임정범 선생님은 임도현 비행사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이곳에 기념관을 만들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임정범 선생님이 따르면 임도현 비행사는 항일 운동을 위해 일본 ‘다치가와 비행학교’에 입학해 비행술을 배우던 중, 1931년 12월에 동료 6명과 함께 군용비행기를 끌고 중국 상해로 망명해 항일 투쟁을 벌인 인물이라고 한다. 그는 중국에 망명해 육군항공학교에서 활동하던 중,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일본으로 압송되었고, 다치가와 비행학교에 강제 입교하게 되었다가 탈출했으나, 다시 붙잡히는 바람에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937년 3월, 출소한 임도현 비행사는 다시 중국의 광서항공학교 교관으로 활동하며 전투기 조종사들을 양성해 중일전쟁 영웅들을 배출했다. 결국 일본 감시망에 체포된 임도현 비행사는 제주에서 감옥살이를 하다 생을 마감했다. **AF**



글·사진 제공
비서실



공군사관학교 제62기 졸업식

참모총장은 2월 27일 공군사관학교에서 거행된 62기 사관생도 졸업 및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145명의 졸업생도들을 축하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부모님과 국가에 감사하는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기 바란다.”라며, “지난 4년간 사관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자기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김진현 생도가 국무총리상을, 윤지섭 생도가 국방부장관상을 받았으며, 아버지의 대를 이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김범석 생도와 황동민 생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회의

참모총장은 2월 21일 공군회관에서 1/4분기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참모총장은 공군 주요 정책·사업과 현대전에서 공군력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준 정책발전자문위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공군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정예공군’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도 정기 공군 정책발전 자문회의
2014. 2. 21. (금) 공군본부



2014년 장교 합동임관식 참석

참모총장은 3월 6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된 '2014년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한 이번 합동임관식에서 5,860여 명의 육·해·공군·해병대 신임장교들은 임관사령장을 수여받고 난 다음 '대한민국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고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는 임관선서를 통해 호국간성으로 거듭났습니다.



AIR FORCE MONTHLY

April. 2014

MONTHLY MAGAZINE VOL.430

www.airforce.mil.kr

김덕수 교수, 故 오충현 대령 평전 헌정

참군인의 조국애와 희생정신에 감동과 존경



공주대학교 김덕수 교수는 故 오충현 대령 순직 4주기를 하루 앞둔 3월 1일 (토) 삼일절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자신이 지은 故 오충현 대령의 평전 『하늘에 새긴 영원한 사랑, 조국』을 헌정했다. 이날 헌정식은 故 오 대령의 부인 박소영 여사 등 유가족과 공사 38기 동기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김덕수 교수는 “고인이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당신의 숭고한 정신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김 교수는 조국에 대한 충정과 삶에 대한 진정성으로 공군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故 오 대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의 생도시절 수양록과 부부가 함께 쓴 일기장 5권을 토대로 『하늘에 새긴 영원한 사랑, 조국』을 지었다.



AIR FORCE MONTHLY



조진수 교수, 하늘사랑 장학재단 기부
공군을 빛낸 인물, 마음까지도 빛나

2013년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된 한양대학교 조진수 교수가 상금을 포함해 1천만 원을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조진수 교수는 항공사업지원TF 민간 자문위원으로 공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활발한 언론 기고 활동을 통해 공군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조 교수는 "KF-X 사업 등 앞으로 공군 전력 발전을 위해 할 일이 많다."며 "앞으로도 공군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공군, 예비군 훈련 시작
달라진 예비군훈련 확인하세요!

3월 10일부터 '14년도 공군 예비군 훈련'이 시작됐다. 1~6년차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 1~4년차 병이 예비군훈련 대상으로 이들은 2박 3일간 군사훈련, 직무교육 및 안보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예비군 훈련 보상비가 6,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훈련소집 통지방법에 인터넷 공인전자주소 메일인 샵(#) 메일이 추가되고, 공군 중위이하 예비역 장교(기지방어대 편성자)는 소총사격을 실시한다. 또한, 졸업유예자와 유급자 등 법정 수업연한이 초과된 대학생은 학생예비군 훈련에서 제외되어 2박 3일의 입영훈련을 받게 된다.



항공우주시대의 꿈나무
교육사, 제46기 항공과학교 입학식

공군교육사령부는 3월 3일 항공과학교 운동장에서 항공과학교 교장 김진식 대령, 재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기 신입생 입학식을 열었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3년간 학비를 포함해 각종 교육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으며, 일반고 교육과정과 함께 기술 부사관에게 요구되는 항공기술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입학식에서는 항공고등학교 출신의 공군 하사인 오빠 준영과, 3학년생 언니 보영에 이어 3남매가 모두 항공과학교 동문이 된 박수영 양이 눈길을 끌었다.



15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체험행사 개최
음주운전 체험으로 사고 예방 도모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3월 6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성남시 알코올상담센터와 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진 전시전, 자신의 음주습관과 유형을 알아보고 진단할 수 있게 하는 알코올사용장애 자가진단과 상담, 음주상태의 시야를 구현한 고글을 착용하고 걸어보게 하는 '음주 시야 고글 체험' 등 정보제공과 체험 양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19전비, 봉사활동
'자원봉사 활성화 공동협력 협약' 맺고 봉사활동

제19전투비행단 대공방어대 장병들은 3월 6일 부대인근 금가양로원을 찾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비행단이 최근 충주시 및 충주시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활성화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해 자원봉사자 회원으로 등록된 이후 첫 활동이다. 이번 협약으로 19전비 자원봉사자들은 개인별로 봉사실적이 관리되어 제대 후 취직 및 학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9전투비행단 대공방어대 장병들은 3월 6일 부대인근 금가양로원을 찾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비행단이 최근 충주시 및 충주시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활성화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해 자원봉사자 회원으로 등록된 이후 첫 활동이다. 이번 협약으로 19전비 자원봉사자들은 개인별로 봉사실적이 관리되어 제대 후 취직 및 학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7전비, 14-1차 전투태세훈련
강한 전투비행단 위한 실전적 훈련

제17전투비행단은 3월 10일부터 이틀간 전투태세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 일선 비행단의 전투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으로 전시전환, 초전대응, 전시지속, 전투력 복원 단계로 구분해 전쟁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는 데 주력했다. 비행단은 F-4E 팬텀 II 전투기의 긴급 귀환 및 재출동 훈련을 포함해 실전과 유사한 동시다발적 대량 피해 상황들을 가정해 대응했으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전투비행단 만들기에 만전을 기했다. **AF**





“오늘은 내가 주인공!”

공군, 병영문화 역할극에 빠지다



제5공중기동비행단을 시작으로 제16전투비행단과 제19전투비행단, 제3훈련비행단 강당에서는 최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역할극 경연대회가 연이어 진행됐다. 무대에 오른 장병들은 노래와 춤은 기본, 코미디 프로그램 패러디를 따라 하기도 하고 최근 TV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로 열연하기도 했다. 역할극에 참가한 장병들은 8분 내외의 콩트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전달했다. 과연 공군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기에 이렇게 전 부대가 들썩거리는 것일까?



수년 전부터 공군 내부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 악·폐습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병사자치제나 동기생활관과 같은 제도적 혁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장병들 스스로가 시대 변화에 따른 병영문화의 개선 요구를 스스로 인식하고 진화하고자 노력해 왔던 결과다.

Special Theme



하지만 사건·사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법. 공군 전체에 병영 내 부조리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 병영 생활의 악습을 역할극으로 만들어 장병 스스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역할극 경연대회'를 열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특별 강연이나 정신교육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였다. 장병들은 하나 둘씩 무대에 올랐고, 병영문화 중심에선 그들은 희망을 노래했다.

병영문화 개선 역할극의 주목적은 장병들이 계급과 역할을 바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이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올바른 병영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역할극 참가자들은 드라마나 뮤지컬, 코미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식을 빌려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는 한편, 내용에는 악·폐습을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공군의 병영문화 개선 역할극 경연대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총 24개 부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역할극 경연대회를 통해 병영 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장비정비대대는 서로 다른 성격과 취향을 가진 병사들이 한 공간에서 만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표현했다. 소위와 준사관, 주임원사가 병사 역할을 맡았고, 병사들이 간부로 출연했다.



제19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의 작품명 “병사의 품격, 우리가 만든다.” 스스로가 병영생활 개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스토리로 비행단의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안(얼굴이 늙어 보인다는 뜻)이라는 이유로 선임들이 불편하게 대하지만, 언제나 밝은 모습을 지키는 ‘늙은 신병’ 역할은 주임원사가 직접 연기해 재미를 더했다.



제16전투비행단 수송대대는 성군기 위반 사고에 대한 작품으로 성폭력 피해자 김 일병의 심리를 통해 가해자의 단순한 호기심이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역할극으로 만들었다.

Special Theme

병영문화 역할 참가 장병 소감

제5공중기동비행단 병장 차영호



저는 원래 전역을 앞둔 병장인데요. 역할극에서는 '매사에 부정적인 일병'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역하기 전에 재밌는 추억거리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일부러 재미있어 보이는 역할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습하면서 점점 몰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병장인데, 일병 입장으로 돌아가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할극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계급을 바꿔서 연기하다보니 대대 간부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제19전투비행단 상병 오세동



제가 맡은 부분이 음악 및 메인 보컬이었는데요. 라이브로 배경음악을 기타연주하고, 극의 클라이맥스에서는 노래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역할이었습니다. 병영문화 개선 역할극 경연대회가 다른 장병들에게 올바른 군 생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역할극을 준비하면서 대대원들끼리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나 싶었는데,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하니까 꼬였던 매듭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제16전투비행단 상병 김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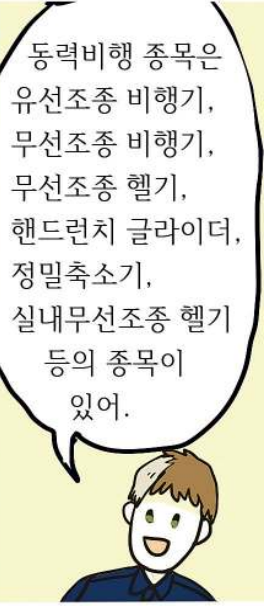


대학시절 간단한 뮤지컬을 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대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대대에서 역할극 지원자를 모집했을 때,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제 역할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김 일병'이었습니다. 연기와 함께 음악과 조명을 사용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사실, 성군기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 평소에는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역할극을 준비한 대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전우들이 꽤 있었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병영문화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F

제36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챌린지 2014

글 이동혁 그림 문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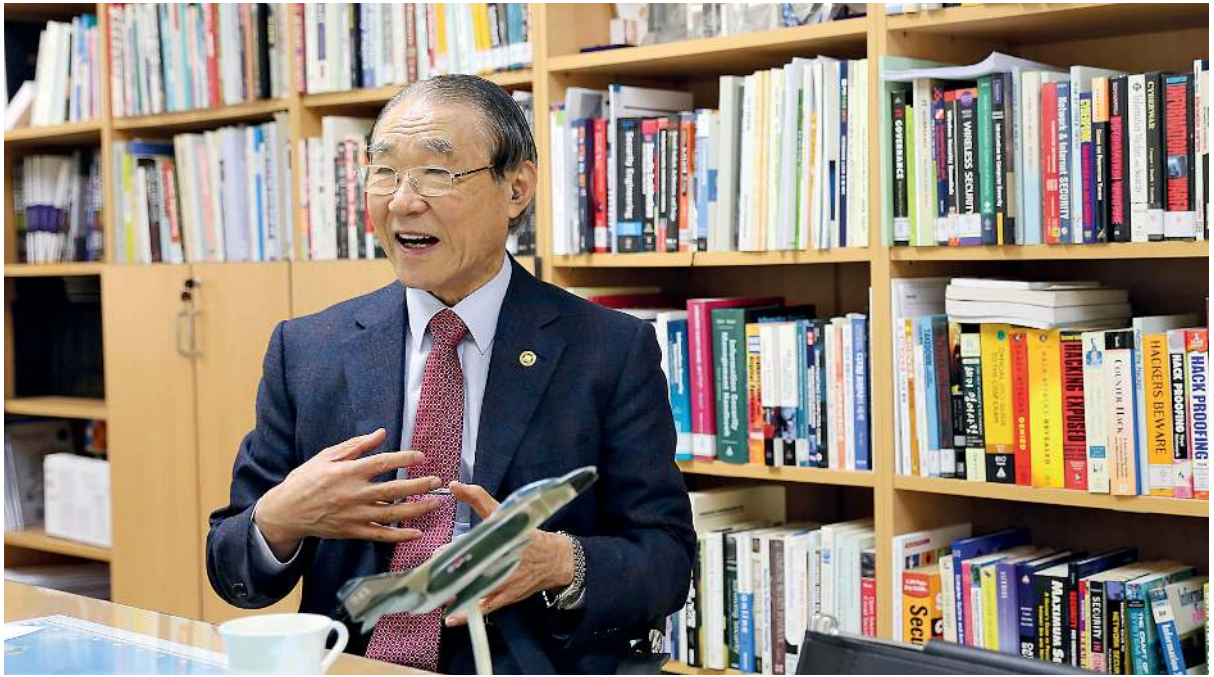


주최 / 주관	대한민국공군	예선대회	날짜	4. 5 (토) ~ 5. 11 (일)
접 수	공군 홈페이지 www.airforce.mil.kr	장소	장소	전국 15개 지역별 공군 부대
본 선 문 의	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 (043-290-6091~2)	종목	종목	고무동력기, 글라이더, 물로켓
		본선대회	날짜	5. 24 (토) 08:00 ~ 17:00
			장소	공군사관학교 (충청북도 청원군)
			종목	고무동력기, 글라이더, 물로켓, 동력비행



국제보안자문협의회 Global Top 10 선임

동국대학교 **이재우** 석좌교수



최근 국제보안자문협의회(IBA : International Advisory Board)에서 세계 보안전문가 10명을 선정했는데요. 그 중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동국대학교 이재우 석좌교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우 교수는 1987년 한국전산원을 창설하고, 1996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초대원장을 맡아 국가전산망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한 뒤, 우리나라 보안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제2의 인생을 만들고 계시는 이재우 교수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57년 공군사관학교 5기로 임관해 약 30년간 공군 조종사로 활약한 이재우입니다. 저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F-5, F-4 전투기를 조종했습니다. 당시에는 블랙이글이 지금처럼 전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단 조종사들이 행사가 있으면 차출되어 축하비행을 하곤 했는데요. 그때 제10전투비행단에서 F-5 조종사로 복무하던 저도 특수비행팀 편대장으로 차출되었습니다. 그때 "블랙이글스"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었어요. 사진 맨 왼쪽에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바로 접니다.



당시 F-5 블랙이글 조종사를 하고 나니까 팬텀 조종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팬텀 조종사가 된 뒤에, 팬텀 대대장, 팬텀 작전부장, 그리고 제17전투비행단장을 맡았습니다. 또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미연합사 정보 참모부장도 했고,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거쳐 공군군수사령관으로 근무하다가 공군소장으로 예편했습니다.

음... 몇 년 전엔가 제17전투비행단에서 역대 단장 초청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2대 단장이어서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비행단장이 지금의 성일환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역 장병 중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참모총장이라고 하지요. 하하하.

기억나는 정비사가 있는데, 팬텀 정비사를 하다가 감독관으로 전역했습니다. 윤철호. 그 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공군 신병으로 왔을 때,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면 막걸리를 먹으라고 봉투를 하나씩 줬다고, 그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그랬나봅니다. 허허. 저는 항상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정비해줘서 고맙다. 그러면 그 분들도 제가 항상 정비사들한테 고맙다고 해줘서 고맙다고 서로 그러죠 뭐.

팬텀 조종사

저는 비행시간이 6천 시간인데, 팬텀이 3천 시간이나 됩니다. 미국으로부터 1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팬텀을 사겠다고 했어요. 미국은 팬텀을 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팬텀이 최신이기라서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쥐도 못 탈 것이라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특명이 있으셨어요. 공군은 저를 포함해 숙련된 조종사 6명을 뽑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 팬텀을 처음 탔는데, 어렵기는 무슨! 조종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팬텀은 성능도 더 뛰어나고 조종하기도 편하게 만들어진 최신에 전투기였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미국 교관들로부터 비행을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1969년, 마침내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팬텀 전투기를 직접 몰고 태평양을 횡단해 우리나라로 가져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백령도에서 사태가 벌어졌는데, 해군작전에 투입되었어요. 적 고속정이 우리 해군함정에 벌떼처럼 몰려들었는데 팬텀이 출격을 하니가 접근을 못하더라고요. 무기 자체가 다른 거라. 무기체계의 우위, 그것이 바로 전쟁 억제예요. 팬텀이 딱 버티고 있으니깐 북한도 감히 도발할 생각을 못한 것이지요. 우리는 팬텀으로 본전 뽑았어요.



도끼만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였어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었는데, 당시 저는 대구에서 중령이었는데 팬텀 12대를 이끌고 출격했습니다. 옛날에는 정밀유도무기가 없었고 모두 폭탄이었는데요. 그래서 적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리라면 그려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아! 다행스럽게도 그날 충돌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는데, 저는 그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옆에 있는 비행기를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12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애들을 다 데리고 나와야 할 텐데. 애들 가족은 다 어떻게 하나.' 그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생각은 하나도 안나. 지금 생각해도 저는 스스로 관찰은 지휘관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투조종사들은 평소에도 죽음에 초연했던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임무를 하려면 당연히 국가관과 사생관이 남들과는 달랐겠죠? 그러니깐 조종사지.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어요. 조종사들이 사진을 잘 안 찍었어요. 사진을 많이 찍으면 일찍 죽는다는 미신이 있었거든요. 젊었을 텐데, 그때 사진이 없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 80세 생일에 제 딸이 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이게 바로 그 그림이에요. **AF**





공군이 만난

Star 립서비스



AF 립서비스 멤버분들 반갑습니다. 공군 장병들을 위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립서비스_안녕하세요. 공군 장병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립서비스에서 립을 맡고 있는 비파, 서비스를 맡고 있는 코라입니다. 합해서 립! 서비스! 예요~

AF '비파'와 '코라' 멤버 이름도 특이한데요. 두 분이 팀을 이루게 된 계기가 있나요?

코라_일단 둘의 음악 색깔이 잘 맞고요. 목소리톤도 너무 다르지만 다르면서도 어울리기 때문에 너무 좋은 그림이 나오겠다고 생각했죠.

AF 데뷔곡 '남남남'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비파_저희 노래 '남남남'의 매력은 재미있고 유쾌한 가사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은 대부분 사랑이야기잖아요? 다이아트를 소재로 한 곡은 드문 경우라서 많은 분들이 새롭거나 혹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AF 무대에서 조종복을 입으시던데, 혹시 공군과 인연이 있으신가요?

비파_네, 저희 아빠께서 현역 공군이세요. 공군 조종복도 직접 추천해 주셨죠. 컨셉 나름 괜찮죠?

AF 오, 그렇군요! 혹시 공군 가족으로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비파_기억에 남는 거라면 예전에 어릴 적에 관사에 살면서 학교 등·하교길을 데려다주던 하늘색 부대 버스가 생각이 많이 나요. 또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전학을 많이 다니면서 사고성도 좋아지고 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AF 여자 힙합그룹이 흔치 않죠? 립서비스가 추구하는 음악은 무엇인가요?

코라_힙합이라고 무조건 무겁기만 한 노래 말고요, 힙합을 유쾌하고 재밌게 풀어보고 싶어요. 대중들과 더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AF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비파_ '남남남'을 통해 저희 립서비스라는 그룹을 국내·외로 많이 알리고 싶고요. 또 연습도 많이 해서 다음 앨범 때에는 더 좋은 음악과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려야겠죠. *^^*

AF 앞으로도 노래, 연기,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 기대하며, 공군 장병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립서비스_공군 장병 여러분, 공군이 제일 멋있어요!! 항상 파이팅하세요!





2014

4
Apri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14

4

Apri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공군가족 자긍심 함양 본격 임무체험 버라이어티

아빠!
뭐해?

화재발생! 화재발생! 항공소방사는 지금 즉시 출동하라!

제17전투비행단 소방중대 심동선 상사, 아들 민규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지 아세요? 바로 우리 아빠예요. 불이 난 곳에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가는 아빠가 너무 용감해요! 성격도 불같아서 화나셨을 땐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크크. 오늘은 아빠와 함께 비행단 소방중대에 가보기로 했어요. 저도 소화기로 불을 끄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배워봐요~(*^^*) **아빠! 뭐해?**



심장이 뛰다. 열을 견디는 방화복

「아빠」 민규야! 항공소방사는 이 소방복과 소방헬멧을 착용해야 해.

「민규」 응, 저한테는 조금 큰데요.

「아빠」 여기는 어른들 것밖에 없잖아. 불이 나면 뜨거운 열이 발생하겠지? 그런데 불을 끄고, 그 안에서 사람을 구해 내려면 불이 뜨거워도 가까이 가야하겠지? 그래서 이 방화복은 열을 차단하는 특수재질로 만들어졌어.

「민규」 그래도 불 가까이 가면 뜨거울 것 같아요.

「아빠」 물론 뜨겁지. 그리고 무거워. 그래서 항공소방사들에게 체력훈련은 필수란다.

소방차가 나갑니다, 아~잉 아~잉

「민규」 아빠, 소방차에 게임기 같은 것이 있어요.

「아빠」 응, 이것은 최신형 소방차인데, 앞에 범퍼터렛이 있어서 이것을 조종하는 장치야. 한 번 움직여 볼래?

「민규」 와, 움직여요. 너무 재미있어요.

「아빠」 지금은 재미있지만, 화재 현장에서는 절대로 장난 치면 안 되겠지.



안전핀을 뽑고, 손잡이를 꼭!

「민규」 학교에서 소화기 사용법을 배운 적이 있어요.

「아빠」 오, 그래? 어떻게 하지?

「민규」 네, 안전핀을 뽑고, 한 손은 손잡이를 잡고, 한 손은 불을 향해서 호스를 잡아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힘껏 누르면 돼요.

「아빠」 좋았어. 그럼 이 분말 소화기로 저기에 있는 불을 꺼보자.





불을 꺼라! 물 발사!

「아빠」 민규야! 이번에는 아빠랑 같이 물을 뿌려 볼까? 소방호스에서 나오는 물의 압력이 엄청 세지?

「민규」 네, 꽤 힘들어요.

「아빠」 불이 꺼질 때까지 계속 호스를 들고 있어야 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큰 불이 나면 몇 시간씩 붙들고 있어야 하지. 대신 소방차 위에 펌프가 고정되어 있어. 올라가보자.

민규야!

「민규」 와, 물대포대! 소방펌프의 위력이 정말 대단해요.

항공기의 비상 착륙을 위해

「민규」 이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져요?

「아빠」 그래. 이것은 활주로 비상 조명등이야. 정전이 되어 활주로는 보이지 않게 되면 신속하게 출동해서 이걸 설치해야 해.

「민규」 이걸 켜면 활주로는 환하겠네요.

「아빠」 비슷하기는 한데, 가로등처럼 활주로를 비추는 것이 아니고, 활주로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내려두면 하늘에서 봤을 때 '활주로 위치가 저기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불빛이란다.



2014년 3월 13일 목요일 남새 시 분 시 분

우리 아빠는 군인이다. 평소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아빠가 하는 일을 체험해 봤다. 내가 해본 것은 소방차로 물 쏘기였다. 이때 옷으로 물이 들어와서 다 젖었다. 소화기로 분을 켜는 땀 분말가루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다. 마지막으로 공기호흡기를 에고 마스크를 써보라고 했지만 숨은 못 쉰 것 같아 하지 않는다고 짤러 썼다. 그래서 아빠가 조금 쉬워 하셨다. 오늘 평상시 해볼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어 재미가 있었지만 무척 힘들었다. 아빠가 하는 일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선생님/부모님 말씀



촬영에 협조해주신 제17전투비행단 소방중대 장병들께 감사드립니다.



꿈을 찾는 인터뷰

INTERVIEW

“하늘을 나는 것은
뽀로로의 꿈”

뽀로로 아빠,

최종일 아이코닉스 대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라면 한번쯤은 뽀로로를 친구로 만나게 됩니다.
 EBS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뽀롱뽀롱 뽀로로'의 주인공 뽀로로는 날지 못하는 새, 펭귄인데요.
 꼬마 펭귄 뽀로로가 헬멧과 고글을 쓰고 비행기를 타는 사연을 알아보기 위해 뽀로로의 아빠,
 최종일 대표를 판교의 아이코닉스 사옥에서 만났습니다.

뽀로로 아빠, 최종일

공군 장병과 가족, 그리고 월간 「공군」 독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이코닉스 대표 최종일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PD겸 작가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을 총 지휘하고, 제작 과정에 들어가면 시나리오를 쓰죠. 캐릭터 디자인이나 만화영화로 만드는 일은 직원들이 해요. 캐릭터 디자이너들과 애니메이터가 있습니다. 참, '뽀로로와 노래해요'에 창작곡이 있는데 제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보니 작사가이기도 하네요.

꼬마 펭귄 뽀로로

하늘을 나는 것은 뽀로로의 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뽀로로는 펭귄이에요. 펭귄도 조류이죠. 뽀로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새들처럼 두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날지 못할까?' 그렇지만 뽀로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게 됩니다. 그래서 뽀로로의 상징은 파일럿이죠. 그래서 항상 헬멧과 고글을 쓰고 있습니다. 뽀로로는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동물을 캐릭터로 하는 것이 세계 시장을 진출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했죠. 어린이들이 좋아할만한 동물 중에서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동물을 물색하다가 펭귄에 주목했습니다.

창작곡, 뽀로로와 노래해요

'뽀로로와 노래해요' 시리즈에는 총 26곡의 노래가 있습니다. 주로 동요나 창작곡인데, '파란나라' 나 '고추잠자리' 같은 노래는 원래 가요입니다. 가요가 7~8곡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멜로디와 가사가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들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다행히 저작권 협의가 잘 되었고, 지금은 아이들도 동요처럼 따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는 '바라밤' 인데요, 창작곡입니다. 역시 제가 만든 노래죠. 처음에는 멜로디가 너무 빠르고 가사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한번 해보자고 했죠. 지금은 실내테마파크인 '뽀로로파크'에서 아이들이 들으면서 가장 신나게 뛰어노는 노래가 이 노래더라고요.

세계 130개국에 수출되는 뽀로로

뽀로로의 브랜드 가치를 8,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한국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창작 애니메이션의 불모지였어요. 한국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산정한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전 세계 콘텐츠 제작자들과 바이어들이 모이는 콘텐츠 마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링크가 되어 있는 환



경이잖아요. 이제는 비즈니스 기술이 아니라 콘텐츠의 질로 승부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130개 국가에 수출이 되었는데, 현지 반응도 기대 이상이에요.

뽀로로의 경쟁력

뽀로로는 자라나는 아이들과 짧으면 1년, 길면 3~4년을 함께하면서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됩니다. 영원히 늙지 않고 계속 또래의 아이들과 교감하고, 동심을 잃지 않는 캐릭터이지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충족시켜준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애니메이션은 교육적인 목적을 강조했었어요. 영어학습용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창의력 향상 같은 목적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수단에 불과했었죠.

그런데 제 자녀들을 보니까 재미있고 신나는 애니메이션에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적 목적보다는 엔터테인먼트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뽀로로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선과 악이 없어요. 순수한 어린이 또래의 친구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부여되면 각자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행동해요. 아이들에게는 대리체험인데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자녀들이 뽀로로의 모델

제 아들이 97년생이에요. 뽀로로를 가장 처음 본 시청자였고, 의견을 주었던 모니터 요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아빠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자랑하고 싶었나봐요. 뽀로로 이전에 제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틀어주면서 막 재미있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솔직해요. 아이들은 재미가 없으면 금세 딴짓을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사업을 떠나서 뽀로로는 제 숙제였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숙제 하나는 끝났죠. 허허.



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시나리오를 많이 썼습니다. 무엇을 하고 노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보면 뽀로로와 크롱의 관계가 저희 아들과 딸이예요. 저희 딸은 자기가 루피의 모델이지 않을까하고 나를 기대했었나본데, “넌 크롱이었어.”라고 얘기했더니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웃음) 제 아내도 이젠 전문가예요. 어디는 좋았는데, 어디는 약하더라. 참견을 많이 하죠.

“해보겠다는 열정과 자신감으로 시작”

창작 애니메이션에 도전

우리나라는 과거에 세계에서 선호하는 애니메이션 프로덕션 국가였어요. 하청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점차 일감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갔어요. 기술력이 있으니, 우리나라도 창작 애니메이션에 도전해보면 어떻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올림픽을 전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창작 애니메이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997년에 제가 다니던 금강기획과 삼성영상사업단, 투니버스에서 각각 애니메이션이 나왔어요. 반응은 그저 그랬죠. 게다가 IMF가 닥치는 바람에 투자비는 높고 수익성은 낮은 애니메이션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2004년, 저는 회사를 나와 아이코닉스를 창업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만류했어요. 사람들이 선망하는 광고기획자였고, 안정적인 대기업 직원인데다 실적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Think Different!” 남들과 똑같이 하면, 남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30세가 넘는 나이였지만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때 고민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뽀로로는 나오지 않았겠죠?

콘텐츠는 미래의 먹거리

아이코닉스는 2004년에 다섯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자본력도 없었고, 단지 해보겠다는 열정과 자신감뿐이었죠. 뽀

로로는 저희 아이코닉스에서 기획했고, EBS와 SK브로드밴드, 오콘까지 네 개 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투자하고 방송할 파트너, 애니메이션 프로덕션도 필요했어요. 물론 콘텐츠는 퀄리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EBS라는 방송사의 역할도 필요했지요. EBS는 지금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채널로 자리매김했는데, 뽀로로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당시 하나로통신이었는데요.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막 시작하던 하나로통신의 CEO께서 ‘콘텐츠’가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해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VOD 개념도 거의 없었는데 말입니다. SK브로드밴드의 IPTV 부분은 아직 KT에 비해 열세지만, 애니메이션 분야만큼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기관이 참여한 애니메이션

지금 EBS에서 방영되는 뽀로로가 벌써 5차 시리즈입니다. 뽀로로가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국민들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항상 느끼죠. 그래서 공공성을 살린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참여했는데, 그래서 탄생한 것이 꼬마버스 타요입니다. 서울의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었죠. 자동차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의 호기심이 대상이에요. 저희도 한 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이미지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밖에도 한국 원자력재단 홍보영화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코레일, 해양경찰청과 같은 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저희도 소재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군 홍보용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면, 비용은?

뽀로로 한 시리즈를 기준으로 1분 제작비는 약 1,3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은 3단계입니다. 프리프로덕션, 메인프로덕션, 포스트프로덕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프로덕션은 기획입니다. 메인프로덕션은 그림을 만드는 작업이고, 포스트프로덕션은 더빙과 음악작업이

죠. 제작비의 30% 정도가 기획에 투입됩니다.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면 좀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2020년 목표는 아시아 TOP 3”

아이코닉스의 목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20여 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유럽국가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중국과 남미에서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기술력은 물론이고, 꽤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아직도 한국의 애니메이션 분야는 열악합니다. 갈 길이 멀죠.

아이코닉스 식구들한테도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수많은 해외 메이저들과 어깨를 당당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2020년까지는 아시아의 TOP 3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예요. 원피스, 드래곤볼 등을 만들었던 일본의 도에이 애니메이션과 닌텐도 포켓몬에 이어 우리 아이코닉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세계에서 12~13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의 목표는 세계 TOP 5가 목표죠.

성공의 비결?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거둬들인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예요. 성공이라는 것은 강하고 똑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도전하는 사람이 쟁취하는 것이더라.” 하는 것이 제 생각이죠. 물론 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운을 잡는 것도 실력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로또와 같은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그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운을 맞이할 때까지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는 솔하게 말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게 지금은 두 작품을 만들면 하나는 성공하니까요.

아이코닉스의 인재상

열정이요! 일에 대한 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논어에 나온 구절을 인용하는데, “지식이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맞는 얘기더라고요.

애니메이션 PD를 꿈꾸는 공군장병들을 위해 한 마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애니메이션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우선 애니메이션을 시작해라.”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리고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일본 명언에 “인생은 선택과 집중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갖고 시작해라. 그리고 집중해라. 그러면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월간 「공군」이 만난
대한민국 최고의 캐릭터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
뽀롱뽀롱 뽀로로



AF_ 뽀로로 친구, 만나서 반가워요. 올해 몇 살이에요?

안녕하세요. 매년 TV로만 나오다가 월간 「공군」을 통해 우리 공군 가족들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뽀로로는 2003년에 처음 나왔으니까,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는 12살이에요. 하지만 만화 속에서는 변함없는 어린이랍니다.

AF_ 와~ 벌써 열 두 살이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많은 어린이들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요?

뽀로로는 여러분의 친구랍니다. 그밖에 만화에 나오는 친구들 크롱과 패티, 에디도 모두 어린이들의 친구예요. 뽀로로에게는 친구를 사귀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의 방식이 있는데요. 이야기 속에서 하나씩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랍니다. 가끔은 짓궂게 장난을 치는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귀엽지 않나요? 사실은 이런 제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답니다. 이게 바로 인기의 비결 아닐까요?

AF_ 뽀로로는 하늘을 날지 못해요?

저는 펭귄이에요. 같은 새인데 하늘을 날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땐 너무 실망했지요. 대신에 하늘을 나는 것처럼 바다 속을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 기뻐요. 하지만 하늘을 날고 싶은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공군 조종사처럼 고글과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아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어요. 하늘을 날아 모험을 떠나는 일은 너무 재밌고 행복한 일입니다.

AF_ 그래요, 뽀로로! 그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네, 뽀로로는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친구로 남고 싶어요. 우리의 공군이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켜주는 것처럼 뽀로로는 어린이들을 향한 무분별한 유해매체로부터 지켜줄게요! 세계로 비상하는 공군처럼 뽀로로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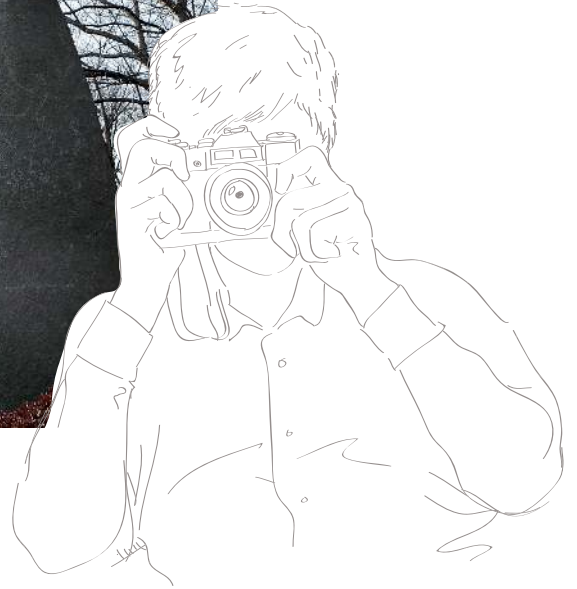
경남 사천 선진리성

공군 ‘충령비’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성(船津里城) 정상에 있는 대한민국 공군 ‘충령비(忠靈碑)’는 사천만(泗川灣)을 배경으로 우뚝 서있다. 선진리성을 끼고 있는 사천만은 남부해안에서 북쪽으로 바다가 활등 모양으로 깊숙이 물으로 휘어들어 예부터 경상남도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통로구실을 한다. 그래서 여러 차례 왜적의 침략을 받았다.

선진리성은 원래 고려시대 조창(漕倉)이 설치돼 토성을 쌓았던 곳인데 임진왜란 때 왜군 장수 모리 요시나리가 침략 거점을 확보하려고 성을 쌓았다. 왜군이 성을 쌓았다고 하여 ‘선진리왜성(船津里倭城)’으로도 부르는 선진리성은 일제 강점기 때 고적 제81호로 지정됐으며, 그후 1963년 사적 제50호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왜군이 쌓은 왜성이라는 이유로 1998년 지방문화재자료 제274호로 등급이 낮아졌다. 최근에는 성 주변을 정비하면서 일본식 건축물과 성문을 만드는



등 공원으로 조성해 사천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이순신 장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거북선'이다. 바로 거북선이 선진리성을 에워싸고 있는 사천만의 사천바다에서 최초로 실전에 사용돼 왜군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사천만의 사천바다는 임진왜란 때 사천해전(泗川海戰)의 전승지로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워 승리한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이충무공 사천해전 승첩기념비(李忠武公泗川海戰勝捷記念碑)'가 선진리성 안에 있다. 총령비는 6·25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8년 9월까지 공군 조종사로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작전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거나 순직한 이근석 장군을 비롯 6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1958년 10월 30일 사천기지의 공군 제1훈련비행단장 오점석(吳占石) 대령이 세웠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국민의 성금으로 도입한 건국기(建國機)의 조종사였다. 6·25전쟁 초기 우리나라 상공으로 출격하는 유엔 공군 전투기는 일본에 있는 기지에서 날아와서 전투하다 돌아가곤 했다. 하지만 그들 조종사들은 낯선 우리나라의 지리에 어두웠기 때문에 공격 목표를 찾거나 선택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한 공격 목표와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이 맡아야 했다. 그런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군정찰비행대가 수원기지에서 창설되었다. 그 당시 대위였던 오점석 대령이 지휘를 맡았다.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남하할 때 정찰비행대는 수원에서 대전기지로 이동해야 했다. 그 때에 오점석 대위에게 "정찰비행을 지휘하여 적정(敵情)을 살펴 공격 목표에 유엔 공군 전투기의 출격을 유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따라서 정찰임무 중 가장 큰 목표는 적의 탱크를

찾아내야 했다. 그런데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평택에서 미 제24사단이 대전까지의 국도를 맡았고, 우리 국군은 평택 동쪽의 중부내륙을 맡아서 적의 남하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작전이 세워졌다. 그래서 중부내륙의 중심지 충북 충주가 국군과 북한군과 서로간의 요충지로 손꼽히게 되었다. 따라서 국군은 충주를 사수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방어에 온힘을 기울였다. 북한군은 장호원과 제천 방면에서 두 갈래로 공격해왔다. 그 지역은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의 두 줄기의 산악지대를 이루는 복잡한 지형으로 접근해오는 적의 공격 상황이 잘 파악되지 않았다. 그래서 육군은 대전기지의 공군정찰비행대에 "충주지역의 적정을 긴급 정찰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정찰비행대장 오점석 대위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충주 상공으로 정찰비행에 나섰다. 차령산맥을 굽어보면서 충주를 오르내리며 주요도로를 살펴보다가 충주 남쪽 4킬로미터 상공에서 아래를 살펴보다가 도로 양편 그늘에 적 탱크 9대가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합동지휘소에 보고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탱크를 더 찾기 위해 저공비행을 감했다. 적은 오점석의 L-5 연락기를 향해 대공사격을 했다. 기관총은 물론 소총까지 불을 토했으나 오점석 대위는 오직 탱크를 더 찾아내어 연락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어서 목숨을 걸고 대공포화를 피하면서 저공비행으로 정찰비행을 했다. 처음엔 9대의 탱크를 발견했지만 나중엔 31대를 더 찾아내어 무려 40대를 발견하게 된다. 즉각 오점석 대위는 발견지점을 보고하였다. 그 뒤 10여 분이 지났을까 유엔 공군의 F-86F 세이버 전투기 2개 편대가 출격해 적 탱크부대를 통과하게 박살냈다.



그처럼 6·25전쟁 때 북한군 탱크 40대를 발견해 큰 공을 세운 오점석 대령이 총령비를 건립한 후 13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퇴색된 비를 1971년에 보수를 하게 되었고, 1982년에는 공군 군사재 제12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보수한지 27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1998년 9월 공군 6·25 참전유공자회에서 전적기념물 정화예산을 지원받아 6·25 한국전쟁부터 1998년 3월까지 사천기지에서 활약하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110명의 명단을 오석(烏石)에 새겨 총령비 제단 앞에 설치하는 등 총령비를 깨끗이 손질하고 빗돌의 비문도 새롭게 바꾸었다.

애 장하다/

조국을 위하여 순국한 국군용사들이여/
나라에 충성을 바친 한 많은 청춘의/
모든 영령들을 그 어느 누가 공경하며/
추앙하지 않으리오/
길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타의 모범이며/
본보기가 되었구나/
채 피지도 못하고 꺾인 아까운 목숨이 되고 말았구나/
그대들이 세운 공과 크나큰 뜻은 만방에/
찬연히 빛나며 하늘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할지니/
그 뜻을 가슴깊이 새기며/
부디 명복을 비읍니다

총령비 뒷면 비문에 새겨진 추모시다. 시에 “채 피지도 못하고 꺾인 아까운 목숨이 되고 말았구나”의 쇠귀는 청춘을 조국의 하늘에 바친 대위 조명석, 소위 이경복, 소위 백성문, 소위 이순구, 대위 천봉식, 대위 장동출, 소위 전구서, 중위 박문귀, 소령 이상주, 대위 원중희, 대위 박두원 등 110명의 영령들이다.

돌이켜보면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선 백성들이 나섰다. 경상도 의령에서 광재우를 시작으로 충청도 금산에서 조헌, 전라도 담양에서 고경명, 함경도 길주에서 정문부, 강원도 금강산에서 사명대사, 황해도 묘향산에서 서산대사가 나섰다.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마다 백성들이 스스로 ‘의병(義兵)’으로 나서서 외적을 막았다. 그런 정신은 6·25 한국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학도병(學徒兵)들과 재일학도의용군이 의병의 정신을 이었다.

의병과 다름없이 “내 조국은 내가 지키겠다”고 나선 젊은이가 있으니, 바로 총령비에 새겨진 110명의 영령 가운데 박두원(朴斗元, 1926~1952) 대위다. 그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일본 다치이라이 육군비행학교를 졸업했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에서 현해탄을 건너와 재일학도의용군으로 육군에

자원입대(自願入隊)하여 낙동강방어전선의 여러 지상전투에서 싸웠다. 그러나 박두원 대위는 전쟁터에서 몸을 송두리째 바칠 수 있는 곳이 조국의 하늘이라고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휘관에게 비행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공군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싶다”고 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지휘관은 그렇게 하라고 승낙했다.

그래서 박두원 대위는 공군본부를 직접 찾아가서 1951년 7월에 공군에 새로 입대해 공군 전투조종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 1952년 3월 1일 강릉기지의 제10전투비행전대에 배속받아 활약하게 된다. 그 당시는 중위였다. 그해 8월 2일 비바람이 몹시 부는 아침에 전봉희 소령이 지휘한 네 대의 F-51D 무스탕 전투기 편대의 제3번기 전투조종사로 간성(杆城) 북쪽에 있는 적의 보급품 집적소를 폭파하기 위해 강릉기지의 지축을 울리며 힘차게 이륙했다. 주문진, 양양을 지나 마침 편대는 적의 상공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까지 세차게 내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폭격할 곳에 이르기 전에 가끔 적의 대공포화가 고도 1만 피트까지 올라와 불꽃을 튀기며 터졌다.

이윽고 편대가 폭격 목표지점의 상공에 이르렀다. 적 보급품 집적소를 찾으려고 편대장기를 선두로 고도를 낮추었을 때 적의 대공 폭탄이 편대기를 스치고 지나가는 아찔한 순간을 맞기도 했다. 그런 위험에 날씨가 나빠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목표지점을 찾기 위해 고도를 더 낮추었을 때 박두원 대위의 전투기는 대공 폭탄에 맞아 흰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폭격을 포기할 대한민국 공군이 아니었다. 그런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네 대의 편대는 일제히 적의 보급품 집적소 일대에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사격을 퍼부으면서 재빨리 빠져나왔다. 하지만 박두원 대위의 전투기는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더욱더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편대장은 박두원 대위에게 탈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기체에 불이 붙었고 통신마저 두절되었다. 그런 상태로 동해바다 상공까지 비행을 계속하면서 기체 전체가 불이 번졌다. 그래도 박두원 대위는 끝까지 자신이 몰던 전투기를 버리지 않고 화염에 휩싸여 불덩이가 된 채 폭발하면서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민간선박이 접근해 재빨리 구조했으나 박두원 대위는 폭발로 인한 화상과 파편으로 이미 숨져 있었다.

애! 총령비 앞에서 ‘내 조국은 내가 지키겠다!’고 임진왜란 때의 ‘의병정신(義兵精神)’으로 자원입대해 공군에서 용맹을 떨치다가 스물일곱 살의 젊은 청춘을 조국의 하늘에 바친 박두원 대위를 비롯 110명의 호국영령 앞에서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는 걸 새삼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AF**



十萬元使用するは秘密にしてはならぬ。これを利用して人心を激發せしむるは將來國內の大爆發を促起せしむるに似たり。

①6 飛行機利用해야人心을 擊發케 하고 又是 將來 國內의 大爆發을 促起하려 함이라

“ 비행기(飛行機)를 이용(利用)해야
 인심(人心)을 격발(擊發)케 하고
 又是는 將來(將來) 國內(國內)의 大爆發(大爆發)을
 촉기(促起)하려 함이라. ”

통한과 비장의 역사적 무게를 담은 한 줄 격문의 '비행기'

강도強盜가 남의 물건을 빼앗았다고 해서 그 소유권도 강도에게 이전된 게 아니다. 일본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긴다. 강도가 장물贓物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꼴이다. 나라의 강도를 '때려잡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 라고 외치듯, 일본군들은 '의병' 들을 '폭도' 혹은 '적도' 라 불렀다. 강도가 남의 집에 들어와 주인행세를 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는 셈이다. 수상이라는 자가 '아름다운 일본' 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 같다. 의병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1907년에는 6백여 회, 1908년에는 1,970여 회에 달하는 일본군 간의 전투가

있었고 참전 의병수는 8만여 명에 육박하였다. 안중근 의사가 강도의 수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1909년에는 1,730여 회에 걸쳐 전투가 벌어지고 참전 의병수는 4만여 명에 육박하였다. 소위 '남한대토벌작전' 이라는 일본군들의 호남지역 중심의 의병토벌전으로, 의병 출몰 지역의 마을은 민간인 참혹한 학살, 방화 등으로 초토화되었다. 의병들은 동학혁명과 명성황후 시해 이후 근 십여 년 끈질기게 일본군들과 전투를 벌였고 1920년대와 1930년대 독립군들의 활동, 1940년대 광복군의 활약으로 이어졌다. 1920년 2월 17일에 쓴 도산 선생¹⁾의 일기에 이런 글이 나온다. "飛行機를 利用해야 人心을 擊發케 하고 又是는 將來 國內에 大爆發을 促起하려 함이라."²⁾

주 1) 1920년 초 도산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비교적 한직인 노동국총판직을 맡고 있었다.
 2) 주요한 편저, 안도산전서, (사)흥사단 출판부, 1999, p.816.





의병전투와 독립군의 전투, 그리고 1919년 노도처럼 일어난 3·1운동의 자유와 독립정신, 그리고 제2, 제3의 3·1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결의에 찬 의지가 한 줄 격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도산은 3·1운동에서 민족의 희망을 잃었으리라. 그 희망을 도산은 '비행기'에 담았다. 좀 더 신속하고 조직적인 독립운동에 비행기는 매우 요긴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임시정부 요원들과 함께 비행기를 구입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도산의 일기는 눈물겹다.

임정의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윤현진尹顯振, 천도교 지도자인 최동오崔東畝에게는 비행기 구입 비용을³⁾, 미국에 있다가 도산과 함께 상해 임정에서 일했던 황진남黃鎭南에게는 구입할 비행기종들을 알아보게 하였고, 조종사와의 통역 일을 맡기기도 하였다.⁴⁾ 김세창金昌世, 옥성빈玉成彬에게는 임정에서 고용할 조종사를 알아보게 하였다.⁵⁾ 하지만 비행기 구입이 실패하면서 중국내 군벌들의 비행학교⁶⁾에 독립군 비행사를 양성하기 위해 위탁교육을 시키도록 한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담은 '비행기'

1919년 4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도산 선생은 내무총장과 국무총리 서리를 겸임하던 때로 임시정부는 '군사편 시정방침'에 독립군 비행대 설립계획을 명시하였다.

"미국에 가감할 청년을 선발하여 비행대를 조직하고 비행기 제조와 비행전술을 학습케 함." 이러한 계획은 동년 1919년 11월 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호외⁷⁾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당시 임시의정원은 법률 제2호를 결의하고, "본 임시 대통령은 '대한민국임시관제 임시헌법 제3장 제15조에 의하여 차를 공포⁸⁾' 하였다. 이 법률 제2호 대한민국 관제 중 제3장 각부 제4절 군무부편 제4조 육군국에는 육군비행대에 관한 사항과, 제5조 해군국에서는 해군 비행대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다.

주 3) 1920년 1월 22일, 2월 17일 도산일기(같은 책, p.787, p.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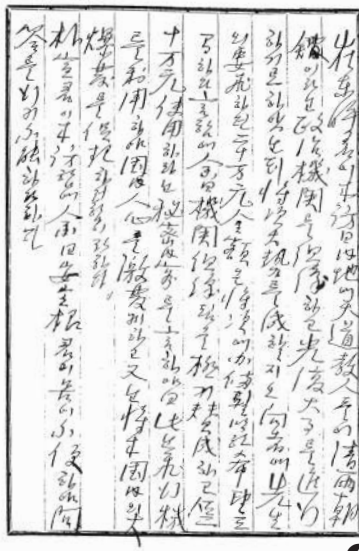
4) 1920년 1월 24일, 2월 2일 도산일기(같은 책, p.790, p.801~802.)

5) 1920년 1월 25일, 1월 31일 도산일기(같은 책, p.791, p.799.)

6) 광동비행학교, 운남비행학교, 보정비행학교, 남원비행학교

7) 대한민국 원년(1919년) 11월 5일

8) 이승만 임시 대통령,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총장 이동녕, 외무총장 박용만, 군무총장 노백린, 법무총장 신규식, 학무총장 김규식, 재무총장 이시영, 교통총장 문창범, 노동국총판 안창호



- ③ 캘리포니아 오렌지농장에서 (흥사단 제공)
- ④ 1920년 2월 17일 도산 일기 (흥사단 제공)
- ⑤ 조국의 장래를 구상하는 도산 (흥사단 제공)

해외 망명지에서 촉발되어 해방될 때까지 지속된 항공독립운동의 신호탄!

도산 안창호. 그는 교육과 사상으로 민족을 깨우치고 자립경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독립의 첫걸음이자 완성으로 여겼다. 그는 ‘애기愛기 애타愛他’를 실천적 덕목으로 강조한 사상가이자 정치지도자였다. 또한 ‘투사’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다. 나라를 빼앗은 강도를 언젠가는 물리칠 것이라는 신념을 그의 일기는 오롯이 보여준다.

도산은 비행기를 이용한 독립운동 전개에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1920년 전후 하여 이미 노백린, 김중림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독립군 비행학교를 세우기 위한 노력,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서얼보, 최육덕, 김공집 등 무장독립운동가들의 비행가 입문, 일본에서는 안창남 등 많은 한인 청년들이 비행술을 배우러 현해탄을 건너고 있었다. 1920년대 이들 망명지에서의 동시다발로 일어난 항공활동과 도산의 격문은 1930년대와 1940년대 항공독립운동의 시발이 되고, 상처의 역사를 뚫고 솟아오른 ‘출격’의 신호탄이 되었다. **AF**



첫 도미 당시의 여권(흥사단 제공)



대성학교 교직원과 학생(흥사단 제공)

Pyung yang Jaisung Academy Korea

※ 본지에 게재된 글은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글·사진 제공
콩디담(블로거,
'콩디담의
다람쥐우리'
운영)

AIR-POWER REPORT

미완의 힌두스탄 파이터, HF-24 마루트

✦ 국산 전투기에 대한 구상

인도가 공군력의 자립을 추구하기에 나선 1950년대 중반, 처음 구상된 HF-2 훈련기를 내놓은 다음 노린 목표는 국산 다목적 전투기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HF-24란 계획 명칭으로 불린 이 기종은 당시 이미 냉전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미·소 초강대국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은 최초의 국산전투기 개발 시도였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폭풍의 신을 의미하는 “마루트”의 기본 개념은 훈련기 개발을 통해 당시 인도 항공업계에서 유일하게 자체 설계 경험을 쌓은 힌두스탄 항공기(HAL)에서 제기했습니다. HAL은 영국제 벵파이어 전투기의 면허 생산을 통하여 항공기 양산 능력을 구축해놓고 있어 자신들이 지닌 능력의 한계 너머에 있는 마하 2의 초음속 전술기를 만들 야심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HF-24의 개념이 세워질 때는 미국과 소련에서도 마하 2급의 항공기는 시제기 단계이거나 F-104를 통해 막 실용화를 준비할 무렵이었습니다.

✦ 마루트의 요구 성능

마루트는 고고도로 침공하는 적기를 요격해 차단하고, 저고도에서의 지상 공격 임무까지 수행 가능한 다목적 항공기로 고안되었습니다. 고도 60,000피트에서 항속거리 500마일에 달하는 전투행동반경에 마하 2.0의 속도를 발휘할 성능을 지닐 것이었죠. 또한, 운용 기관인 인도 공군에서 내건 요구에는 고등 훈련기를 기본으로 삼고 그것을 더 발전시킨 전천후 전투기로의 적응에 더하여 항공모함 갑판 위에서 운용이 가능한 함상기로 개조하기에도 적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쿠르트 탱크 박사의 기회

인도 공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작업은 힌두스탄 항공기(현재의 HAL)에 할당되었습니다. 그러나 갓 독립한 1955년의 인도에는 이런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인프

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정부는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출자한 국비를 풀어 2차대전 당시 포케-울프 사의 주임 엔지니어로 군용기 설계 분야에 있어서는 자자한 명성을 쌓아올린 쿠르트 탱크 박사와 그의 조수 루드빅 미텔후버를 초빙했습니다. 쿠르트 탱크 박사는 그 높은 명성에 비하여 독일의 패전 이후 연합군에 의해 고의적인 박해를 받으며 항공업계에서 열외당하다가 아르헨티나로 건너가 제트 전투기 폴카 II를 개발하던 도중 그를 지지해주던 페론 정권이 무너져 개발이 중지되고 고향으로 돌아오며 쓰디 쓴 고배를 들이킨 상황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년의 은퇴를 바라보는 자신이 재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 무동력 활공기 테스트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1호기의 제작은 1957년 6월에 시작되며 이 항공기에는 HF-24라는 제식 분류기호가 붙여집니다. 항공기의 항공역학적 효과를 재현하기 위해 목재로 만들어진 정교한 목업이 1959년 초엽에 준비되었고, 인도 공군은 이 무동력 활공기의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인도 공군의 비행대대장 살렌 슈리 소령과 카필 바르가바트 대위가 엔진도 없는 실물 크기 글라이더에 올라타 조종간을 잡았습니다. 복좌형 조종석이 마련된 이 테스트용 글라이더는 낡은 C-47 다코타 수송기에 의해 견인되어 보통 12,000에서 15,000피트 사이의 고도에서 분리되었는데, 두 명의 조종사는 정확한 비행특성이나 활공비도 증명되지 않은 시제기를 아무런 동력도 없이 조종해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HF-24 목업의 설계가 원래 뛰어났던지 천

운이 따라주었는지 그도 아니면 둘 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60년 3월까지 이 활공 실험은 총 78회의 비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 마루트 시제기, 처녀비행 성공

그 후 모두 3개월에 걸친 지상 테스트 프로그램을 마친 HF-001은 수란잔 다스 중령이 조종간을 잡고 1961년 6월 17일에 처음으로 활주로를 박차고 창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실로 인도 항공의 역사를 새로 쓴 이 첫 공식 비행은 당시 국방장관이 참관하는 가운데 실시되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 감격의 눈물 속에 시제 1호기 HF-001이 처녀비행에 성공했고, 이 기체는 인도 공군에 정식으로 건네어지는 동시에 시리얼 넘버 BR 462라는 코드 레터와 함께 동체와 날개에 인도 공군의 라운델 마크를 그려 넣게 됩니다. 인도 국민으로서는 감개무량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겠지요. 이듬해 마루트의 두 번째 시제기인 BR 463이 개발 프로그램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 엔진을 찾아서

HF-24의 설계는 추력 8,170파운드의 후연기가 부착된 영국제 브리스톨-시들리 오르페우스 터보제트 엔진을 기반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엔진을 개발한 영국은 인도의 수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오르페우스 엔진은 후연기를 갖추지 못해 추력 4,850파운드에 그치는 절름발이 단계에서 그치게 되었으며, 오르페우스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던 HAL의 개발진과 탱크 박사는 대체 수단을 찾아내야만 마루트 프로그램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 소련제 엔진 RD-9F

인도 국방부는 1961년 MiG-19SF 전투기에 장착된 소련제 투만스키 RD-9F 엔진 여섯 대를 수입해 방갈로르에서 지상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콤팩트하고 직경이 작아 마루트에 장착해 보겠다는 심산이었지요. 개발진은 이 소련제 엔진을 HF-24의 후보 엔진으로 삼고 면허 생산을 요청해 1962년 7월까지 실험을 계속했으나, 결국 1963년에 후보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수명이 짧았던 데다가 마하 1.4의 풍동 실험에서 부품의 파손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로 인하여 마루트는 엔진 베이가 덩그러니 열린 채 전체 프로그램을 보류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 추력이 부족한 오르페우스 703

마루트의 성능 요구사항의 기준에 대해 한 발 물러선 인도 정부는 1962년 말에 여전히 추력이 부족한 오르페우스 703을 장비한 선행 생산기 18대를 먼저 발주하기로 결정했지요. 이러한 미봉책은 공군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62대나 계속 납품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르페우스 703을 심장으로 삼은 마루트는 기존에 운용 중이던 영국제 호커 헌터 전투기의 수준에서 미미한 성능만 개선한 정도에 불과했지요. 그리하여 인도 공군은 마루트의 일선 배치 시기를 늦췄는데, 인도와의 분쟁 당사국인 파키스탄과의 관계가 날로 험악해지는 정세 가운데 전력 공백기가 길어지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E-300 터보제트 엔진의 한계

한편, 미텔후버는 마루트가 안고 있던 추력 부족 문제를 일거에 날려버릴 새로운 해결책으로 엔진 공학자 페르디난트 브란트너 박사가 이집트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설계한 E-300 터보제트 엔진을 찾게 됩니다. E-300 엔진을 개량한 EL-300 엔진은 9,240파운드 수준으로 이 엔진을 쌍발로 장비한다면, 마루트 전폭기는 충분히 음속을 돌파하는 속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집트 측에 필사적으로 선을 댄 끝에 1964년 11월 2일에 협력 계약을 카이로에서 서명했습니다.

20개월 후인 1966년 7월, 인도 정부는 HF-24 Mk 1 BX라고 이름 붙여진 마루트의 업그레이드 버전 시제기에 오르페우스 703 또는 EL-300 두 가지 엔진을 모두 장착했습니다. 하지만 EL-300 엔진도 인도 공군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개조된 마루트의 시제기는 음속을 돌파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비무장 상태에서도 마하 1.1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인도 정부는 프로젝트 전체에 실망을 감출 수 없었고 1969년 7월 인도의 테스트 팀은 본국으로 되돌아오기에 이릅니다.

✦ 험난한 엔진 개발의 길

영국의 엔진 메이커 브리스톨-시들리 사는 버려진 오르페우스 엔진의 개량을 제안했지만 이미 너더리가 난 인도 정부는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인도 정부는 마루트 전폭기의 제한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루트 전폭기에 남겨진 운명은 인도 자신들의 힘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한시바삐 일선에 전력화시키는 길만이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AF**



마루트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 HF-001. 이 기체가 첫 시험비행에 나섰을 때는 BR-462라는 시리얼 번호가 붙여졌다. 가운데 오른쪽에 서 있는 인물이 개발 주임 쿠르트 탱크 박사



마루트의 시제 1호기 BR-462. 양산 1호기인 BD-845는 1967년에 인도 공군 제10 비행대에 합류했다.



브란트너 E-300 터보제트 엔진



글·사진제공
이미도
(외화번역가,
<똑똑한 식스팩>
등 지음)



Hollywood English

노예 12년

제86회 아카데미 영화제의 주요상은 <블루 재스민>,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그래비티>, 그리고 <노예 12년>에 돌아갔습니다. 순서대로 각각 여우주연상(케이트 블란체), 남우주연상(매튜 메커너히), 감독상(알폰소 쿠아론), 작품상(브래드 피트)을 수상하였습니다.

'최고의 작품'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Two thumbs up'입니다. 엄지손가락 두 개를 치켜 세운 동작을 나타내지요. <노예 12년>도 'Two thumbs up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걸작 못지않게 주목 받은 또 하나의 '최고작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말 '직찍'은 '직접 찍은 사진'의 줄임말이지요. 과연 '직찍'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뭘까요? 'selfie'입니다. <노예 12년>의 인기를 능가할만큼 주목 받은 작품은 영화제 진행자인 엘런 드제너러스가 트위터에 올린 '직찍'입니다. 제니퍼 로렌스, 브래드 피트, 브래들리 쿠퍼 등 대스타들에게 둘러싸여 포즈를 취한 컷들인데요, 리트윗수가 무려 300만을 돌파했을 정도이지요. 이 폭발적 반응을 전한 외신은 영화제의 진정한 승자는 '갤럭시 노트 3'라고 공개하기도 했지요. 엘런이 그것으로 '직찍'을 찍어 올렸으니까요.

<노예 12년>을 만든 흑인 감독 스티브 맥퀸이 원작소설을 발견한 건 그의 아내 덕분입니다. '자유인으로 태어났지만 노예로 전락하는 흑인의 이야기'를 구상하고 있던 스티브에게 솔로몬 노섭의 존재를 알려준 게 아내이니깐요. 1853년에 출간된 동명 원작소설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는 문구가 작품의 골격입니다.

"Narrative of Solomon Northup, a Citizen of New-York, Kidnapped in Washington City in 1841, and Rescued in 1853, From a Cotton Plantation Near the Red River, in Louisiana."

1841년 워싱턴 시에서 납치되고, 1853년 루이지애나의 레드 리버 인근 목화 농장에서 구출된 뉴욕 시민 솔로몬 노섭의 이야기

〈아미스타드〉, 〈컬러 퍼플〉 등 흑인의 인종차별을 다룬 영화들처럼 〈노예 12년〉은 전기물 드라마인데요. 앞 영화의 주인공들과는 달리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인 솔로몬 노섭은 목수입니다. 가끔 바이올린을 연주해 돈을 벌기도 합니다. 뉴욕 시민인 그가 평화롭던 어느 날 눈뜨는 곳은 열차의 어두운 짐칸입니다. 일자리를 주겠다고 접근한 백인들에게 속아 폭음을 했던 것인데, 정신을 차려보니 남부 루이지애나에 팔려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노예로 신분이 바뀌고, 이름도 '플랫'으로 바뀐 솔로몬은 탈출할 기회를 노립니다. 동료 노예들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고 목숨만 부지해. 그게 우리들 노예니까!" 그러자 플랫은 결기어린 눈빛으로 쏘아붙입니다.

"I don't want to survive. I want to live."

난 목숨만 부지하는 노예로는 싫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단 말이야.

"I will not fall into despair! I will keep myself hardy until freedom is opportune!"

난 절망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거야. 자유를 되찾을 때까지 곳곳하게 버틸거야!

목수 출신인 플랫은 목재소로 팔려갑니다. 그의 첫 백인 주인 포드는 뜻밖에도 자비롭습니다. 실력을 인정받고, 신뢰도 얻은 플랫은 용기를 내 고백합니다.

"Before I came to you I was a free man."

주인님께 팔려오기 전 저는 자유인이었습니다.

"I am trying to save your life! But I have a debt."

나도 자네 목숨을 구해주려고 노력하네만 난 빚이 있다네.

알고 있었다는 듯 표정을 짓던 포드가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결국 플랫은 포드가 빚진 목화 농장의 에드윈 엠스에게 팔려갑니다.

에드윈은 악랄한 캐릭터의 전형입니다. 사이코패스를 떠올리게도 하는 인물입니다. 노예들을 폭력으로 길들이는 건 기본이고, 어린 흑인 노예를 키워 자신의 성노예로 부리기까지 합니다. 그런 폭력을 가까이서 보면서도 플랫은 나서지 못합니다. 생사의 여부조차 모른 채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모은 돈을 백인 감독관에게 쥐어주며 탈출방법을 의논하다가 목이 날아갈 위기도 겪습니다.

12년 동안의 노예의 삶을 상영시간 140여 분 안에 압축해 담기란 난제일게 분명한데도 스티브 맥퀸 감독은 '아카데미 작품상급의 연출력'으로 모든 장면을 직조해냅니다. 스토리를 연대기순으로 전개할 경우 관객에게 지루함을 안길 수 있는 대목들은 플래시백(Flashback) 기법을 활용해 활력을 불어넣고, 주인공이 고뇌하는 모습을 부각할 땐 롱테이크(long take) 기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대단원에 이르러, 감독은 가장 긴 롱테이크 장면을 독심 넘치게 배치합니다. 탈출을 위해 플랫이 선택한 방법이 통할지, 아니면 들통날지 불안해하며 결과를 기다리는 플랫의 얼굴엔 카오스의 우주가 모두 담겨있습니다. 압권의 명연기입니다. 다음날 그를 구하러 백인들이 찾아옵니다. 과연 플랫은 어떤 방법으로 다시 솔로몬이 되는 걸까요? 스포일러여서 가려둡니다. 솔로몬이 가족과 극적으로 상봉하는 자리에서 그가 가족에게 처음 건네는 대사는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놓을 것입니다.

참고로, 〈노예 12년〉은 솔로몬이 팔려갈 때 노예상이 책긴 돈이 1,000달러라는 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가 지금으로 치면 얼마쯤 될까요? 분석에 따르자면, 1841년부터 2014년 사이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27,000달러쯤 된다고 하는군요. 노예 비즈니스가 왜 성행했는지 우회적으로 짚어보게 하는 수치가지요. **AF**

Two thumbs up!





TREND'S
GOOD!

트렌드가 보인다!

4월엔 뭘 입지?

작년엔 3월 말 즈음 눈이 왔었고, 5월엔 반팔 티셔츠를 입었던 걸 보니 봄이 무척 짧습니다.

기다리는 봄은 더디고, 금방 여름이 와버리니 옷 고르기 가장 힘든 때가 4월이죠.

야외 활동이 많은 4월인데, 그렇다고 바람은 쌀쌀해서 티 한 장만 입고 나갈 순 없고.

그래서 골랐습니다.

장병 여러분의 후회를 덜어줄 이번 달 강추 아이템은?

과잠바? 스타디움 재킷!

흔히 불리는 이름, '과잠바'. 캠퍼스에서 입고 다니던 학교 로고가 새겨진 점퍼의 본래 이름이 '스타디움 재킷'입니다. 최근 스트리트 패션에서 가장 손꼽히는 인기 아이템이죠. 셀럽들도 마찬가지. 지드래곤이 '생 로랑'의 스타디움 재킷을 입고 무대에 오르기도 했고, 최근 <별에서 온 그대>의 천송이 동생, 천윤재 역을 맡은 모델 안재현 역시, 극 중에서 '마크 바이 마크 제이 콕스'의 재킷을 입었어요. 스포티한 옷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스타디움 재킷도 디자인이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고르기 나름! 평소 수트 팬츠나 셔츠를 좋아하는 장병도 충분히 스타일링할 수 있어요.

스포티한 스쿨룩을 즐겨 입는다면?

티셔츠에 청바지나 트레이닝 팬츠를 즐겨 입고, 야구 모자를 즐겨 쓰는 당신이라면, 가장 기본형의 스타디움 재킷을 고르고, 러닝화와 프린트 티셔츠를 골라 포인트를 줄 것!



- 1·2. 특수 코팅과 코튼을 접합한 기능성 소재로 바람 차단과 체온 유지가 탁월해 간절기에 좋은 재킷. 뉴발란스
3. 프린트 반팔 티셔츠로 재킷 앞 지퍼를 열어 포인트를 줄 것. H&M
4. 형태가 유지되는 디자인으로 등판, 앞, 옆판의 포켓으로 수납이 용이. 뉴발란스
5. 574시리즈의 2014년 새 버전. MLB 메이저리그팀 컬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574 스타디움(574 STADIUM)'

클래식한 수트와 셔츠를 즐겨 입는다면?

본래 입던 셔츠와 수트 팬츠를 그대로 입고 딱딱한 브리프 케이스 대신 심플한 디자인의 백팩을, 클래식한 로퍼 대신 스니커즈를 골라 신고, 수트 재킷 대신 스타디움 재킷을 걸쳐보자.



- 1·2 네크라인과 소매, 밑단에 스트라이프 포인트는 톰 브라운의 시그너처. (좌)톰 브라운, (우)톰 그레이
3. 너무 뽀뽀하게 다려 입지 않는 것이 더 멋스러운 옥스퍼드 셔츠. H&M
4. 심플한 디자인의 나일론 소재 백팩. 기본 수트에 매치해도 잘 어울린다. 라코스테
5. 단정한 컬러감의 프리런 2 매쉬 스니커즈. 나이키

밀키터리얼 캐주얼을 즐겨 입는다면?



- 1·2 광택이 나는 나일론 소재의 스타디움 재킷. 지퍼와 포켓 디테일이 포인트다. (좌)H&M, (우)프리즘웍스
3. 캐주얼한 맨투맨 셔츠. H&M
4. 카모 플라자 프린트 백팩. 외부 수납공간이 많아 이동 중 따로 가방을 여닫을 필요가 없다. 브라운브레스
5. 최근 굉장히 유명해진 브랜드 '그렌슨(GRENSON)'. 클래식한 디자인이지만 카고 팬츠와 잘 어울린다. 그렌슨

BEAUTY LAB

귀차니즘에 빠진 장병을 위한 '그린 라이트' 화장품. 당신의 선택은?

Q. 클렌징하랴, 쉐이빙 크림 바르랴. 샤워실에 클렌징 폼이랑 쉐이빙 젤 챙겨가는 것도 귀찮아요. 둘 중 하나 꼭 빠트려서 포기하고 말죠.

- A1. 라네즈 옴 '듀얼 액션 무스 클렌저'
자극이 적은 무스 타입으로 부드럽게 피부 속 피지를 씻어내고, 면도 자극이 적도록 끈적하고 풍성한 거품이 오래 유지된다.
- A2. 존 마스터스 오가닉스 '유칼립투스&아가베 2-IN-1 페이스 워시&쉐이브 폼'
유칼립투스 와 라벤더 성분이 피부의 열을 식히고 균을 억제해 면도 전 최상의 피부 컨디션을 만든다.



VS

Q. 스킨, 로션, 에센스, 수분크림. 대체 다 언제 챙겨서 바르죠? 샤워하고 나면 피곤해서 잠에 폴아떨어지는데, 뭘 바른다는 것 자체도 귀찮고요. 훈련에 망가지는 피부를 내버려 둘순 없고, 어떡하죠?

- A1. 라네즈 옴 '듀얼 액션 에센스 로션'
편평하면 에센스와 로션이 한번에 섞여 나와 편하게 바를 수 있다. 미네랄과 비타민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톤과 모공 탄력이 개선된다.
- A2. 존 마스터스 오가닉스 '유칼립투스&아가베 2-IN-1 모이스처라이저&애프터 쉐이브'
아로마 테라피는 물론 수분크림, 애프터 쉐이브 크림까지 한번에 관리할 수 있다. 면도 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오일프리 제품이라 모공 트러블이 없다.



VS



글·사진 제공
윤미영
(방송작가)



사진 출처
영화 페이스북

PREVIEW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영화 <어거스트 : 가족의 초상>

일본의 영화감독 기타노 다케시는 '가족이란 누가 안 볼 때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라는 살벌한 말을 했었다. 어떤 때는 살아가는 희망이 되지만 어떤 때는 벗어나고 싶은 족쇄가 되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라는 만국 공통의 진리. <어거스트 : 가족의 초상> 역시 무시무시한 족쇄같은 가족의 이야기다. 자살한 아버지의 장례식 때문에 억지로 모인 가족들. 시종일관 막말하는 엄마, 이혼 위기에 빠진 큰딸, 사촌과 사랑에 빠진 둘째 딸. 누구하나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이 콩가루 가족은 마침내 몸싸움까지 불사하는 막장 상황극을 연출하고 만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미를 관객 스스로 찾게 만드는 묵직하고 인상 깊은 영화다.

- + 연기력 대회를 보는 듯한 메릴 스트립, 줄리아 로버츠, 베네딕트 컴버배치 등 비현실적 캐스팅
- 모든 영화의 해피엔딩을 기대하는 관객들에게는 다소 짝퉁한 영화일 수 있다.



'자유' 사용 설명서 영화 <도서관전쟁>

문화와 사상이 탄압받는 가상의 시대. 나라에서는 책을 유해매체로 지정해서 나쁜 책을 걸러낸다는 목적 하에 '미디어 양화법'을 만들어 무차별적으로 책을 검열하기 시작했고, 책을 지키기 위한 도서대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책을 없애려는 사람들과 책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목숨을 건 전투를 시작한다. 이 만화 같은 설정의 영화 <도서관전쟁>은 일본에서 소설로 탄생해 애니메이션을 거쳐 영화로 재탄생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성공적인 지지를 얻어낸 작품. 만화적 설정만 빌렸을 뿐 자유를 향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와 자유가 가지고 있는 가치 등의 전인류적인 공감대를 형성할만한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적과 상관없이 즐길 수 있을 만한 영화다.

- + 영화의 무거운 주제를 가볍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영화 속 러브라인
- 빈약한 스타일. 독특한 설정을 지나치게 현실적으로 시각화시키면서 특유의 가상공간과 시간의 매력이 사라졌다.





글
강명석
(대중문화평론가,
IZE 편집장)



사진 출처
소녀시대
페이스북



소녀시대 스타일

그룹 소녀시대의 막내 서현은 1991년생, 한국 나이로 스물 넷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글을 읽을 장병들 중 꽤 많은 숫자는 서현을 '누나'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다. 소녀시대가 2007년에 데뷔했으니, 장병들 중 일부는 초등학교 때 소녀시대의 데뷔를 보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소녀시대가 누군가에게 '누나시대'로 부르는 것도 놀랍지만, 걸그룹이 8년째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데뷔 전 MBC <9회말 20아웃>에서 여주인공 수애를 질투하던 고등학교 소녀로 나오던 윤아는 현실에서 이승기와 공개적으로 사귀고 있고, 데뷔 당시 약간은 명한 표정과 해맑은 눈웃음으로 수많은 10대 소년들을 설레게 했던 티파니는 이제 가장 스타일리쉬한 연예인 중 한 명이 됐다.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원더걸스는 멤버 선예의 결혼, 소희의 탈퇴 등으로 사실상 해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반면 소녀시대는 여전히 인기 그룹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소녀시대가 최근 발표한 노래 'Mr. Mr'는 유튜브에서 1주일 만에 천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외에서의 인기는 오히려 요즘이 더 좋다고 할 만큼 높은 정도다. 미국 빌보드에서는 소녀시대의 컴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기

사를 내기도 했다. 인기있는 걸그룹이 많지만, 8년동안 이렇게 계속 정상을 차지하는 팀은 보기 드물다. 이런 성공에는 소녀시대만이 보여주는 특유의 전략이 있다. 최근 몸을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걸그룹들이 많은 것처럼, 걸그룹은 섹시 콘셉트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데뷔 당시에는 청순하거나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20대 초중반에 접어들면서 점차 섹시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최근 'Something'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걸스데이도 막내 멤버 민아가 10대일 때는 애교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20대가 된 뒤부터 본격적인 섹시 콘셉트를 보여줬고, 기대만큼 성공할 수 있었다. 섹시 콘셉트도 과하지만 않다면 음악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인 만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섹시 콘셉트가 지나치면 그룹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과한 노출 이후에는 새롭게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소녀시대는 섹시 콘셉트를 좀처럼 활용하지 않는다. 'Gee'의 대히트에 이어 발표한 '소원을 말해봐'에서 핫팬츠를 입은 것 정도를 제외하면 섹시함이 확 드러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The boys'와 'I got a boy'에서는 남성적인 느낌을 더한 의상을 입었고, 'Mr. Mr'에서는 아예 남성 정장을 소녀시대에 어울리는 느낌으로 소화했다. 그만큼 대중에

게 어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소녀시대는 빠른 이미지 소모를 막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멤버들이 2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스타일리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 걸그룹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에게 어필하지만, 소녀시대는 꾸준히 여성들에게도 어필하면서 그들을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소녀시대의 옷이나 화장품은 상당한 인기를 얻는다. 애초에 정상급의 걸그룹이 점점 더 섹시한 걸그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무리였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녀시대는 여성들이 좋아할 수 있는 스타일의 걸그룹으로 차츰 변해가면서 자신들만의 색깔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점에서 소녀시대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걸그룹이 8년차를 맞이해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섹시 콘셉트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 여성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예상 밖의 선택이다. 데뷔 시절에는 남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룹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정말, 소녀시대는 그들만의 시대를 만들어 나간 듯하다. **AF**



OPINION

생각하는
그림



글
중위(진) 정상근
(정훈과)



일러스트
이한아
(일러스트
작가)



행복과 불행사이



1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을 찾아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저는 사는 게 왜 이 모양일까요? 아내의 잔소리는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자식들은 매일 싸움질을 하는 통에 하루하루가 전쟁 같답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2



농부의 한탄을 들은 선생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염소와 개, 닭을 방에서 기르게. 내 말대로 하면 행복이 시작될 걸세.”

3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시키는 대로 방 안에 염소와 개, 닭을 풀어 놓았고, 집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농부는 다시 선생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게 뭐니까? 아내의 잔소리만 더 늘었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졌단 말입니다.”



4



선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네. 이제 가족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내도록 하게.”

5

집에 도착한 농부는 가족들을 내보내고 그동안 쌓인 오물들도 모두 쓸고 닦았습니다. 며칠 후, 농부는 환한 표정으로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집안이 궁궐같이 느껴지고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와 아내의 잔소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법을 쓰신 겁니까?”



선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 가족들을 집에 들여놓으라는 것 밖에. 자네는 이미 궁궐같이 깨끗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 자네는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AF**

6



담벼락

그 열이 시 반 자체 이야기 「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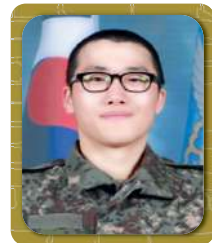


저축이 나에게 준 목표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놀고먹기에 바빴던 나는 저축이란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쓰시는 가게부를 보면서 '저축은 어른들이나 하는 거야' 생각하면서 학창시절 저축 한번 해보지 않고 20대가 되었다. 대학을 들어가고 알바를 하면서도 역시나 몸에 밴 습관으로 저축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군 입대를 하게 되고 훈련병 때 OO은행에서 적금을 들게 하는 게 있어서 무심코 들게 되었다. 월급도 조금 받는데 많이 들었다가 군대에서 못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싶어 2만 원만 들었다. 그렇게 나의 첫 강제저축이 시작되었다. 자대배치를 받고 일병 진급을 하면서 월급이 조금 늘어나게 되고 2만 원 으론 제대해도 대략 50만 원밖에 모이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고 적금을 더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상품에 4만 원을 추가 적금하고 총 6만 원의 적금을 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가 미쳤지. 안 그래도 먹는 것에 환장하는데 6만 원을 적금에 넣으면 월급의 반 이상을 저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사나...' 하면서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러면서 저절로 병사들이 BX를 갈 때 나는 생활관으로 들어갔고 병사들이 밥을 적게 먹을 때 나는 산더미처럼 쌓아서 먹어 군것질을 즐기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돈을 저축했다. 다행히도 나중에는 월급 인상과 더불어 상병진급으로 인해 내 숨통이 조금은 트이게 되었다. 아무튼 그렇게 한 달, 두 달, 다섯 달, 여섯 달이 지나자 딱 쓸 만큼만 쓰게 되고 적금은 고스란히 월급에서 빠져나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저절로 목표가 생겼다. 이 돈으로 유럽여행을 가자! 사실 적금만기가 돼서 이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행기 표 값밖에는 안 나오는 걸 알면서도 제대하고 알바를 해서라도 꼭 가자라는 목표가 생기게 되었다. 제대가 1년 넘게 남았는데도 유럽 여행 책을 사서 가고 싶은 곳을 정하고 조사하고, 군 생활 반 이상을 한 지금까지도 목표에 변함없이 계속 유럽을 파헤치고 있다. 23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언가에 꽂혀서 열중하는 건 게임 다음으로 처음이었던 거 같다.

사실 나에게 살면서 이렇다 할 목표라는 게 없었다. 학창시절 학교에서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공부하고 대학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간 것도 아니었고 아무런 목적 없이 졸업을 하고 이렇게 군대로 떠 밀려오게 되었다. 그러다가 군대에서 처음으로 저축이란 걸 하게 되고 저축을 통해 유럽여행이란 목표가 생긴 것이다.

사람들은 군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린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나도 달력의 날짜를 하나씩 지워가면서 제대날짜만 기다리고 있다. 전역모를 쓰고 있는 선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날이 오겠지 기대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제대날짜는 오게 되어 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인거 같다. 2년 군 생활을 하면서 흐지부지 보내기보다는 목표를 정해 달성해가면서 군복무에 임한다면 보람찬 군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저축이 나에게 준 목표처럼 말이다.



제18전투비행단 상병 김권능



진정한 저축의 의미

지난달 원로배우 황정순이 타계하면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각박한 요즘에 이 얼마나 가슴 따뜻한 소식인가. 혹자는 말하기를 “지금까지 많은 것을 누렸고, 또한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며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인도 분명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터인데 상속을 하지 않은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부유한 자들일수록 남들에게 인색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시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자기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 놓는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십여 년 전 노량진 수산시장 첫 갈 할머니로 유명한 유양선 씨를 들 수 있다. 할머니는 15년간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수억 원의 도서를 기증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통하여 꿈을 키워 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평생 근검절약으로 구입한 4층짜리 건물을 할머니의 고향에 있는 한서대에 장학금으로 기탁함으로써 학비가 부족한 젊은 대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며 아껴가지만 궁극적으로 얻은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에서 언급한 두 분이 정답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좋은 길라잡이임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남들에게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을 선행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로 인하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정신적인 평안은 더욱 값진 것일 게다. 무언가를 내어 준다는 것은 보람되고 즐거운 일이며,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은행을 통해 재산을 불려가는 것만이 저축이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거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인생에서 큰 적금을 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병사들도 군 복무를 학교나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재충전의 호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라는 말처럼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살찌우는 것이 진정한 저축의 의미가 아닐까 한다.

공군본부 감찰실 중령 반재석



돼지저금통보다 무거운 것

초등학교 시절 내 책상에는 돼지저금통이 있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없던 것이 생겼다. 어머니께서는 하루 한 번 100원을 용돈으로 주셨는데, 나는 하루 반나절을 오락실에서 100원으로 버티곤 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돼지저금통을 사오셨고, 돼지저금통을 다 채우면 그 액수만큼 더 저금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그길로 오락실을 끊고 세뱃돈도 동전으로 바꿔가며 돼지저금통을 꽉 채웠고, 주먹만하던 돼지저금통은 나날이 커져만 갔다.

돼지저금통의 크기가 축구공만 해졌을 즈음, 교내 소아암어린이를 돕기 위한 모금이 있었다.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드리자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돼지저금통의 배를 가르라고 하셨다. 나는 학교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내서 단상 앞에 섰다는 사실도 위안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났었고, 그 후 내 책상에선 돼지저금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졸업을 앞났을 때, 장난을 치다 지나가던 친구와 부딪혔다. 그 친구의 존재를 몰랐을 정도로 과묵하고 왜소한 친구였는데, 나와 부딪히면서 발목을 접질리고 말았다. 선생님은 혼을 내는 대신 그 친구를 업고 집에 데려다 주라고 하셨다. 하는 수 없이 그 친구 집으로 향하던 중 “고마워. 단상에 네 얼굴을 보고 꼭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말하게 돼서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라고 친구가 말했다. 친구의 가벼운 몸무게만큼 무거웠던 돼지저금통이 생각나면서, 힘들게 돈을 모으는 만큼 값진 곳에 돈을 쓰는 것이 진정한 저축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날 이후 내 책상에는 언제나 돼지저금통이 있다.

제1방공유도탄여단 일병 이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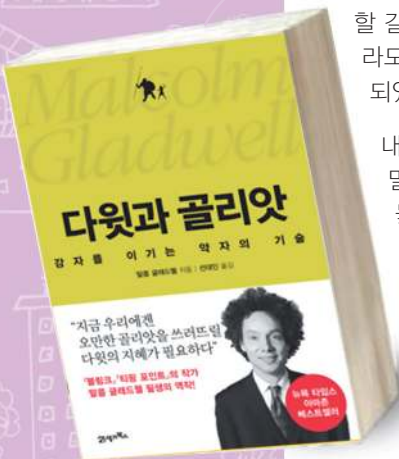
※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호 공모 주제는 ‘자전거’입니다.



글
김미라
(KBS 방송작가)



책마을



남편이 은퇴를 했다. 예정된 은퇴였지만 남편은 낯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러운 눈치였다. 남편이 회사를 떠나는 날, 나는 꽃다발과 두 권의 책을 선물로 준비하고 그를 마중하러 갔다. 한 권은 '우주는 안녕한가요?' 라는 책이었고 또 한 권은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 이라는 책이었다. 그에게는 지혜로운 위로도 필요하고, 냉철한 격려도 필요하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우주는 안녕한가요?' 라는 책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예를 들자면 푸에블로족의 이런 기도문 같은 글들이 담겨 있다. "선함을 붙잡으라. 그것이 지구에서 한 줌밖에 남아 있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믿는 것을 붙잡으라. 그것이 홀로 서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붙잡으라. 지금부터 가야 할 길이 멀다 할지라도. 당신의 삶을 붙잡으라. 그것을 놓아버리기가 훨씬 쉬울지라도. 내 손을 붙잡으라. 내가 당신 걸을 떠날지라도." 남편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들 때 이 기도문이 분명 위로가 되어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에게 정말 권하고 싶었던 책은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 이었다. 말콤 글래드웰은 언제부터가 유행어처럼 번진 '1만 시간의 법칙' 을 세상에 꺼내 놓은 인물이다.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 에 등장하는 '1만 시간의 법칙' 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틀즈도, 빙판 위의 권 김연아도, 탁월한 예술가들도, 또한 조종사들에게도 1만 시간의 법칙은 유효할 것이다. 하지만 1만 시간을 바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하루 3시간, 한 주일에 21시간, 그렇게 바친 10여 년의 세월이 탁월한 무언가를 만들려면 자신을 통찰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 은 이런 화두로 시작한다.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이 아니라 상처받은 다윗에 의해 발전한다' 고. 세상의 약자들을 단순히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명확한 사례와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말콤 글래드웰은 성실하고 믿음직한 안내자다. 누군가를 이 책을 자기계발서나 실용서로 분류하지만,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들은 일종의 철학책으로, 힐링책으로 받아들여도 좋다. 따뜻하지만 무책임한 위로보다는 말콤 글래드웰처럼 다소 차갑고 명징한 격려가 훨씬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으므로.

말콤 글래드웰은 거인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거인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통념이라고 알려준다. 작고 약한 존재가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며, 강자의 강점보다 약자의 약점이 세상에 기여한 바가 더 많다는 것을 알려준다.

스스로를 '상처받은 다윗' 으로 느낄 때가 적잖은 현실에서, '약자의 약점' 에 숨겨진 아름답고 위대한 면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건 멋진 일이다.

말콤 글래드웰은 '다윗과 골리앗' 을 펴낸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피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을 때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확신을 주고 싶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처지는 너무 심한하니까.' 그는 차가운 지식인이 아니라 연민이 많은 따뜻한 지성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힐링 서적으로 받아들여도 좋으리라.

언젠가 당신이 '상처받은 다윗' 이라고 느껴질 때, 격려가 필요한 약자라고 느껴질 때 일종의 비상구처럼 이 책을 펼쳐보길 권한다. 은퇴라는 '예정된 역경' 을 즐겁게 받아들이게 된 나의 '상처받은 다윗' 처럼. **AF**



월간 「공군」 4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 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4월 30일까지

1. 2014 브라질월드컵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횟수는?
2. 공항에 근무하면서 수송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안내하고, 화물의 하역·적재 임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종합 OOOOOO이라고 한다. OOOOOO에 들어갈 말은?
3. 아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주인공, 일명 '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 캐릭터의 이름은?

2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 답 1. 우주수송 2. 김종림 3. YI-SWAN

퀴즈 당첨자 서울특별시 중구 이종현 ● 경기도 수원시 김동일 ● 광주광역시 서구 조태오
충남 계룡시 서여선 ● 부산광역시 북구 한상근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도로명주소 _____

□□□□ -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 021-91219

백일장 열일곱 번째 주제
자전거



* 분량 : 800자 내외
응모시 개인 사진 함께 제출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의 구독을 희망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 글, 그림, 출연

인트라넷(E-mail) leedh63@af.mil
인 터 넷(E-mail) afpaper@naver.com
전화번호 042-552-6943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월간 「공군」 4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4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독자퀴즈 정답자 중 5명을 추첨해
멀티비타민 '네이처 밸런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L

Letters to the editor



조광진 부산 서구 월간 「공군」은 '지붕'이다. 하늘을 지키는 공군은 집으로 치면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한다. 2월호는 공군의 우주작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우주를 향한 공군의 힘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공군의 강한 힘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도 공군에 대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지 환영입니다.

편집실 강한 공군의 힘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보람 있는 일이 분명합니다. 공군을 신뢰하고 응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월간 「공군」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태호 경남 창원시 월간 「공군」은 '보디가드'다. 읽으면 꼭 보디가드가 지켜주는 것처럼 든든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한 '아빠 뭐해'는 공군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코너인 것 같아요. 사진과 함께 설명이 되어 있어 이해하기도 쉬웠습니다. 공군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인, 어린이도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

편집실 저희 공군도 국민들의 성원이 있어 항상 든든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미래의 희망인 우리 어린이들이 공군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 충남 논산시 월간 「공군」은 '진짜사나이'다. 열정적이며 땀 흘려 훈련하는 정말 멋진 사나이이다. 이번 호에 '공군문화유산답사기'에 나온 애국충절의 고장 안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스물 네 살의 꽃다운 나이로 조국의 하늘에서 산화한 이일영 중위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편집실 지금의 우리나라와 공군의 발전은 선배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월간 「공군」은 조국을 위해 희생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달할 것입니다.

성애선 서울 양천구 월간 「공군」은 '내비게이션'이다. 공군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2월호의 '생각하는 그림' <가시밭길을 걷는 방법>이 기억에 남아요. 실패를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라는 격려의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성 공군들의 병영 생활 이야기도 소개해 주세요.

편집실 애선님, 감사합니다. 공군의 내비게이션으로서 더욱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할게요!





꿈을 찾는 인터뷰
34 page

하늘사랑문학상 작품 공모

2014년 8월 31일까지

주최 | 공군, 공군역사재단
대상 | 전 국민 (장병 및 군무원 포함, 기성작가 제외)
주제 | 공군, 하늘, 우주, 공군창군 초기역사
제출 | 인터넷 메일 (skylove@airforce.mil.kr)
우편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9호 홍보과)
문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홍보과 (042-552-6933)



공모 부문 및 출품기준

- 시 : 3편 이상 (100행 이상 장시 1편도 가능)
- 수필 : 2편 이상 (200자 원고지 15~20매)
- 단편소설 : 1편 이상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

시상 내역 및 인원

- 최우수 : 상장 및 상금 300만원, 3명 (부문별 1명)
- 우수 : 상장 및 상금 100만원, 3명 (부문별 1명)
- 장려 : 상장 및 상금 50만원, 6명 (부문별 2명)

공군 매거진 블로그엔 재미있는 소식들이 가득!
공감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공군

<http://afzine.kr>

<http://afplay.kr>



대한민국공군